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二十面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墺內亂의뒤에 오는것 — 歐洲不安增大

一

一部外國人에 依하야 極東의 戰爭危機論이 各種各樣으로 反覆되고잇는 最近에, 엇더니 歐洲에잇서서는 戰爭의 實演에 對比할 大規模의 騷擾이 巴里와 維也納의 二大都市를 中心으로 演出되엿다. 그것은오즉 그 國家內에在한 事變에 不過하다 하드는 簡單한일이지마는 事實에잇서서, 後者의그것은 歐洲不安의 焦點을 가는 國際的 性質의 것으로 事變이 一過한오늘에오히려 事變勃發以前보담도 그 振幅을 넓이할 素因을 包藏하고잇스니 첫째는 反政府軍事行動에 失敗는 하얏다할지라도 墺太利社會民主黨은 그本據를 척코슬로밧키아로 옴겨亡命하여온그指導者들은 依然히 再起를 企圖하고 잇스며, 他面過激暴動에는 沈默을 직히여 돌푸스政府와 社會民主黨派 의相互勢力 扶殺에 微笑를 띄고잇든 墺太利나치스가 獨逸나치스의 後援下에서 依然獨墺合倂의 機會를 엿보고잇는데 反하야 돌푸스政府는 約二萬五千에 不過한 國防軍과 스타헤롬베르히公이 引率한 國防團의支持를 得하고잇슴에不過함으로 數日前英,佛,伊三國이 體面上 發表한데 不過한 獨立保障에對한 미지근한 聲明만으로는 到底히 墺國現政權은 墺國을 他에依하야 阻害밧지 안을만한 安全地帶에 노혀잇다고는 到底히 말할수가업다

二

이리하야 現在의墺國에는 獨逸側으로부터 强襲하여드러오는 獨逸나치스와 墺太利나치스의 獨墺合倂運動, 獨逸의强化를 눈압헤혹으로생각하야 이를阻止하려는目的으로 돌푸스政府를經濟的으로後援하여온佛國, 佛國의目的에서 一層더나가 합스부의家를復活식혀 墺匈合倂을企圖하고 此를自國의勢力範圍下로하려는伊太利, 中歐에在한純理的인데모크래시의 防衛者로서自任할뿐만아니라 獨墺合倂과墺匈合倂의 그어느것이나 自國의獨立을脅威하는것으로 感하야 墺國內에民主的政權의樹立을希望하는나머지 過敵의社會民主黨의革命에는 直接間接으로後援을한 체코슬로바키아, 실그머니 社會民主義的革命을諸級獨裁로 誘導키 爲하야過敵暴動에는 共産黨員을參加식힌莫斯科의 影響等의綜錯한 國際關係가 形成되고잇스니 이諸勢力과 諸動向이混然한 均衡을保持하는限에서는오히려 돌푸스政府는 그獨自의型式的强權의 巧妙한操縱에依하야 現狀維持를繼續할수도잇슬터이지마는 그어느한勢力이優勢하야 政權移植에能動的役割을하게되는時에는 即時他勢力의 反撥을맛나 即時그것은 그勢力의背後에잇는 各國間의 戰火로서發展할素因을多分히가진것이다. 이곳史家가墺國의政情이歐洲全般에미치는 影響이一九一四年以前의 巴爾幹半島問題와酷似하다는所以이다

三

그러나 이中에잇서가장能動的인必至할듯한 墺國의將來는 그歷史的, 또는 現實的 動力으로보아獨墺合倂이라고하는것이輿論의 大勢이다. 나치스의 强襲力의增大, 돌푸스政府의獨立能力의缺乏, 軍事的微弱 墺國그自身의 經濟的自立力의不足等이 그理由로서 重要視된다. 그것은 돌푸스政府가나치스의 內政干涉防止를聯盟에提訴하려는데에서 證左되는것이다. 그리고 이에對하야,이問題를聯盟에 提訴케하는形式이可하다否하다는것은 三國間에아즉도 意見의一致가업는것은英佛伊가 亦是墺國의 獨立을두구를 엇더한 黨派를中心으로할것이냐하는點에 意見相違가잇는까닭이라고 볼수잇다. 英國이 徹底하지는못하나마, 勞働黨出身의 閣僚의大義名分으로서인지, 勞働黨의過敵社民黨革命支持決議의 反映인지 그어느쪽인지는 모르나돌푸스政府의社民黨彈壓을 不可하다는條件을, 共同聲言에 添附하자고提言하야 消極的態度를取한것과, 最近伊太가 佛國보담도熱心으로 돌푸스政府를 後援하는態度에 나가고, 反政府軍이一時優勢를 獲得時에는伊墺國境에 動員하려는 形勢까지를 보인것은注目할點이엿다. 돌푸스政府가 過敏的態度에나 墺國獨立保障에對한 英佛伊의態度表明을要請한데 對하야數日前에,벌서 伊國은 獨立保障에 國土의 共同聲明이「墺國의獨立과領土保障은 必要하다는共通한意見에 達하엿다」는것으로結論된것을 볼지라도, 그들의態度가 完全한一致를缺한것은알수잇다. 이를 反駁하듯이 再昨日 獨政府가「獨逸은 墺政府의獨立을 侵害치 안는다」고聲明한것에「一國의 獨立은그國家와人民自身의 希望하는政府의存在가不可缺의條件」이라고附言하야 暗然히돌푸스政府는墺國人民의 希望하는政府이아니라고 暗示한것은興味잇는對照엿다。 그러나 股後, 伊사條約을死守하는 英佛等이旣上明示된 獨墺合倂을積極的으로防止한다 할지라도, 墺國自身의自主的獨立能力이 事實上缺乏한以上, 墺國의獨立保障은疑問이다 그것은中歐의 新十累陣에對한 國際條約이 列强諸國에依하야現下事實上 空文化하고잇는것과 한가지다。 一國의獨立은當該國家自身의 實力만이오즉唯一한保障임은 歷史上의眞理이다

進退維谷의돌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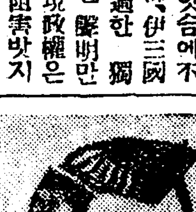
나치스『一週日以內로』 이속으로드러오너라 그러지안으면 쏠테다 伊『나치스化할테냐?』

金華畵

岡本氏査問委員會(第三回)

文相運命을決할 攻防大論戰展開

精銳한辯護士를先陣에 巧妙한應酬와誘導質問



【聯合東京電話】 二十一日衆議院岡本一己氏의 查問委員會第三回는 問題인樺太工業事件의鳩山文相五萬圓 收授의經緯와鳩山氏가 岡本氏를使用하야證據를湮滅키爲한톡리(奸計)內容과司法當局이 當時內閣書記官長인鳩山氏의 犯罪行爲를黙過하엿다고하는 司法權의 綱紀紊亂問題에 對하야 糾明할것으로 唯一의野黨인國民同盟에서는 打倒政友會를目標로하고法學博士淸瀨一郞,野田文一郞等諸辯護士를내세우고 民政黨도武富濟,一松定吉,谷原公等諸辯護士를陣頭에세워議會의威信確立을目標코 突擊을準備하고잇다 政友會도또自家存亡에關한大問題인만큼 松野,熊谷,濱田,上田,島田等諸辯護士를送하야鳩山文相擁護의最後防禦陣을펴고드되여 奇怪窮迫한問題의查問委員會는 午前十一時十分開會開會與頭議事進行에對하야野田文一郞氏(國同)高橋藏相,三土鐵相,鳩山文相의出席을要求하엿스나 아직出席치안은理由는어대인잇는가

此時,岡本,江藤兩氏가守衛에 護圍되야 出席하자 野田君은繼續하야

野田氏

帝人株에서어든利益一千三百萬圓中斡旋手數料二十萬圓外에配當金四十五萬圓이 臺灣銀行以外로 나가버렷다 이巨額의金額이臺灣銀行으로부터어모問題업시流出된것은아모리하여도疑心치안흘수업다

野田氏는 더욱帝人神鋼株處分에對하야述하엿다

島田委員長

時期에出席하도록通知하엿다고말하고 野田氏, 金子直吉氏住田茶와 三土鐵相과의 關係를微細하게述하자 此時委員外의志賀和多利氏(政友)

岡本君이余에對하야述한것은甚히遺憾으로此際辯明하겟다는前提下에

鳩山文相은 樺太工業事件의善後處置에關한報告를바든일은업고또金錢을賄賂한일은全然無根하다

고하야前回의取消要求를繼續하자

文相의受賄事實을 岡本氏끗가지論證

志賀氏等의取消要求를拒絶

岡本一己氏(無所屬) 兩君의辯明이아된다兩君이모도否認하고잇스나 否認하는것이當然한것으로 그러케하지안으면 안될處地에잇다 兩君은 國家를사랑하기前에愛黨心에흔들니고잇다 따라그辯明은 何等信憑力이업다

志賀氏 岡本君에게 此以上取消를要求치안는委員會諸氏의判斷에맛김다

고區區히辯明하엿다

谷原公君(民政) 岡本君의一言一句는 證據가되여政治的裁斷에重要한資料가 될터임으로何等拘束되지안는陳述을바란다

고激勵하고

岡本君 明白히冒瀆에六高關係를中心으로한 陰謀와不穩한字句가記入되여잇다 余의생각은 岡本君의말은眞實性이잇다고생각하나 一方林米田兩君은 蓬井君의同窓이오同黨임으로 如何한動機로이러한일을하엿는지 疑心치안을수업다 이點에關하야岡本君의 說明을듯기바란다

고誘導的質問을하자

岡本君

蓬井君과林,米田兩君과의間에는誤解가잇는지도알수업다

百圓짜리撒布에 受領者指名要求

上田氏, 森氏가鳩山文相의依賴를바더百圓짜리를撒布하엿다고 猪野毛君으로부터 드럿다고하는바事實인가

岡本氏

猪野毛君도어떤사람으로부터드른것으로그사람과는 絕對로他人에洩漏치안켓다는約束이잇슴으로 그사람과다시議論치안코는일홈을말할수업다 余가今日일홈을들면他에여러가지困難한일이發生될것이다

上田氏

岡本君이自分의便宜로言明을避한다고하면全責任은岡本君에게잇다

岡本氏

證據는 新聞社와함께言明을拒否하는以上 重大한것임으로

一松定吉氏(民政) 議事進行에關하야

一松氏

岡本君陳述의眞實與否를究明하기爲하야 岡本氏의査問委員會에本件에關한 蓬井君米田其他關連된人物의出席을要求하야 眞相을뭇고십다 單純히 意見이 나辯明만으로議事進行에 支障을招來할것이다

라希望하고 島田委員長도 一松氏의希望을諒承한다고述하고午後零時卄五分休憩하엿다

히틀러여여긔까지는제발드러오지마소

中世的暴權의 純化된獨逸의 獨逸敎會의 나치스化를要請히獨逸만 淨書이니, 獨逸敎會의 門前에서마틴 루터의精神은 달려드는힛틀러에게「獨裁者는 一日之寒요, 敎會는永遠한것이니라」고부르지즈며, 에서

蓬井은事件에關하야 岡本君이事情을說明하려고생각하엿슬것이다 公憤과友情의板挾에 苦悶하는蓬井君의處地에는 滿腔의同情을表한다

谷原君

岡本君의演說을妨害하는바는 안이나演說妨害의 報酬로드되여잇을엿게된것이안인가 百三十名의代議士가 妨害하엿다고한當時의岡本君의實感은 어떠하엿는가

岡本君

議場에는야지와興奮된空氣로支配되엿다는것은나도遺憾으로녁이나 그러나多大한金額을撒布하엿다는것은 여러가지疑惑으로나도 大體이것은 事實이라고생각한다 百三四十名이라고하엿스나三,四名의差異는잇슬는지모르나 이것은事實이다

여기서國同의 林逸郞君(政友)

一身上의辯明을하기爲하야 發言을求하야 蓬井君이再昨日査問會에서 言明한것은不可解하기짝이업다 入日岡本君의말로은明白하다 蓬井君이紀述한데서 나왓다는것 蓬井君은岡本君에對하야取消要求를하겟다고말하엿스나 余는蓬井君과는 何故로取消치안엇는가 六高에서三年間以上이나同班이엿슴으로 일홈을그대로부르는사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岡本君은 蓬井君의眞筆이라고 指摘한데對하야 蓬井君이辯明하지안은 理由는어대잇는가 今般事件의全責任은蓬井君에게잇다

고蓬井氏를責하자

谷原君

樺太工業問題에關하야 岡本君이引受한役割은刑事事件이다 證據湮滅犯罪의共犯關係로 岡本君自身의 浮沈에 關한것이다 당신은 如何한方法으로報酬를바덧는가 또證據湮滅에對하야 如何한妥協을하엿는가

岡本君

米田君의말은 全部나의明言을立證하는것이다 谷原君의質問에對하야 答하는바이事件後나는 憂鬱하엿다 何時에呼出될가하는 不安한氣分에싸여잇든바 어느날訪問한즉「잘되엿다」고말하엿다 余는아모것도밧지못하엿고 引受한理由는森恪氏가諒解하엿고또森氏는將來國家를議論할人物임으로이러한意味로引受하는것으로 이國家에奉仕하는것이라고생각하고 아모報酬도밧지못하엿다

藤田君

岡本君의말하는것과가티慎重히 나온것이라면 달리取할方法이 잇다고생각한다 最後에 三土鐵相이 이問題에關係하엿다는것은무엇인가

岡田君

裏面에서 큰役割을하얏다고생각한다

藤田君

野村君이文相에게面會하려간때 林君이名刺를請하얏다는바 秘書官이라면當然하지안은가

岡本君

米田,林의兩君은조끔關係햇다

藤田君

조끔하다면 왜이름을내세웟나 이때문에 兩君은代議士로서 매우障害를밧는다

岡本君

全體를본후에質問하야달라 單純한말속을잡는質問에는答辯할수업다

(以下明日夕刊繼續)

同僚의非行暴露에 岡本君心境如何?

【電通東京電話】 岡本代議士의發言에關한二十一日의 查問委員會는 午前에繼續하야午後二時二十五分再開

島田委員長

政府로부터提出된 公判記錄은 보시는것과가티 浩翰한것으로 이것을閱覽함에는相當한 時間을要한다고 생각하는바 委員各位에서는 되도록 今明日中에 閱覽을終하도록하기바란다

고述하고

淸瀨一郞君(國同)

時間의 節約上 審議繼續中에도 閱覽을許하라

고希望한즉 委員長이 許可하얏다

藤田若水君(民政)

藤田氏,岡本氏에게一矢

岡本君은 가튼政友會에 屬하는同僚의 非行을 暴露한바것인 이에이르른 岡本君의 心境을 듯고십다

岡本一己君

이綱紀의 頹廢를 如何히하려는가 大義에는親도滅할수박게업다는마음에서 이것을한것이다 一月廿日에 書面으로써 總裁에게도 이問題에 關하야 進言하고 發言의 許可를 提議한것은 同二十九日이다 그런데 幹部會는 이것을 許치안코 여긔게신 島田委員長과 가튼이는 書面以外의 再質問의 際하는 暴風을 捲起할念慮가 잇다하야언젠가 許치안혓다

고委員長에게까지 대든다

政黨聯繫運動을 黨中心으로誘導

政友會內紛은緩和될듯

【電通東京電話】 望月總務의決意는인제 動渡의危險前에잇는黨의內紛에 非常한衝動을與하야除名派나非除名派나 鈴木派나 鳩山系나床次系나 久原系나舊政友系나 모다氏의辭任慰留에努力하야드되어 會員一致로써 慰留의決議를하게되엿는時에이愛黨의精神에依한 犧牲的行爲를 無視하야無理하게我利를主張함과 如한일이잇스면도로혀 黨員全部의反感을招致하는結果를招來할 異樣的空氣를醸成할것으로 모다크게自省하야가장强硬한態度를取한久原系도 될수잇는대로 冷靜히黨內同志의 聯携를保持하야極히徐徐히初志에向하야 進行하기로되여 床次派를中心으로한政黨大同團結運動도 二十日夜發表한것과가티 그實施를極히緩和하게하야 絶對的으로幹部를刺戟함과如한言動을 避하고도로혀 幹部스스로此에乘하야 聯黨一致로此運動의 貫徹을期하려함에至하엿슴으로 幹部로서도 黨의大勢가이것을希望한다면여지로 이것의反對의態度를取치안코될수잇는대로 善導하야 黨中心의政黨聯繫運動을誘導하려는意向을 表現하여왓슴으로 黨內의一般情勢도 非常히緩和되고 玆에一時小康을엇게될模樣이다

國府對米蘇英間 大外交戰開始乎

米國은治外法權徹廢에應答 蘇中不可侵條約交涉도開始

【聯合南京二十一日發】 南京政府는 滿洲問題의 解決을契機로오래동안 停頓狀態에잇든外交關係調整을 爲하야着着準備가整頓되여가는데 關係各國도南京政府의 實力을認定하고 各種懸案을 解決하려고努力中이다 그리하야 各國의對中外交戰은今春을 期하야크게展開하려한다 即아메리카는 이미中國側의提議에 딸아治外法權의撤廢其他의 政策을認하야條約改訂할것을 申請하고交涉의 第一階梯에 入하엿다 蘇聯邦은顔惠慶大使의 歸國을機會로停頓狀態로 되여잇는 不可侵條約其他의交涉을 行하려고盛히活動中으로 보고모로포蘇聯邦大使는 數日中에 南京에와서交涉을開始하기로되엿다 또北平에잇는 顔惠慶氏는南京에와서此에 參加할模樣이다 一方英國은이미 一九三三年으로滿期가 되엿는데現在는積極的으로는 動치안으나漸次蘇中交涉의 進捗에伴하야아메리카와 倂行的으로交涉을 進行할意志를 갓고잇는것으로觀測된다 如斯한 雰圍氣에잇서서有吉公使의 今回南京行은日中國交調整上 무삼出發點을齎來할것이라하야 期待를갓고잇다

中國雲南邊境에 英人大擧侵入

【聯合東京電話】 確實한側에達한情報에依하면 雲南省,緬甸國境附近의 瀾滄縣氾浜에昨年十二月十四日 英國人七八名이突然出現하고 다음同十九日英國人二千名이同地에侵入하야自動車道路의改築,橋梁의修築等을行하고잇다 同地方은金銀의有名한產地로英國은中國이福建獨立其他 內政問題로 邊境에注意하지못하고잇는틈을타서侵入한것으로보이는바 同地方은 邊陲의地임으로 이事實이最近에至하야 判明하얏슴으로雲南政府는 民明新割英領事에게 嚴重抗議하고잇는데 英國이雲南地方에 食指를動하고잇는것은注目된다

夕刊後의市況 (廿一日)

東京短期東新 後場 大引 一三三〇 高値 一三三〇 低値 一三二六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三〇四〇	(三〇低)
鐘新	一三一八〇	(二〇低)
日証	一四二四〇	(一〇高)
東新	一七二四〇	(三〇低)

橫濱生絲 當限 六五三〇〇 先限五五 二〇〇

石油業法 朝鮮施行確定的

一朝有事의 際에 備할 石油業法은 商工省으로부터 近近議會에 提案하여 協贊을經하야 施行을보게되엿는데 同法은製油及 石油輸入의 許可制度並 石油의 保有義務를 規定한것인바 朝鮮은 外國에 本社를 가진石油會社는 直接輸入을하는關係上 朝鮮을法域外에 置함은 全然同法의 效果를失하는結果로되므로 朝鮮에 施行되게될것은 確定的 事實이므로 總督府商工課에서는 벌서施行準備에 着手하얏다

京畿道警察部異動 (二十日附)

高等課 警部 三輪和三郞 命忠淸南道出向

東大門署 同 高村正彦 命高等警察課勤務

仁川署 警部補 富田政人 任警部命東大門署勤務

開城署 同 中島義雄 命仁川署勤務

加平署 警部補 二瓶義春 命開城署勤務

仁川署 巡査 內山福松 任警部補 命加平署勤務

豫算道會 召集日程決定

昭和九年度豫算案審議의道會는 全南,慶南二道를除하고左記日程에依하야召集될터이다

京畿道	三月三日—三月十六日
忠北道	二月廿七日—三月七日
忠南道	三月六日—三月十五日
全北道	三月一日—三月八日
全南道	未定
慶北道	三月一日—三月十四日
慶南道	未定
黃海道	三月二日—三月十日
平南道	二月廿四日—三月三日
平北道	三月三日—三月十二日
江原道	三月三日—三月九日
咸南道	二月廿四日—三月二日
咸北道	二月廿四日—三月二日

春季新學期開始

早稻田大學講義

學科豐富、講義懇切、新たに現代名士の卷頭特別講座を連載し、質疑應答によつて直接個人指導を全うし、早稻田獨得の三大特典、活用自在の幾多の大附錄等、眞に至れり盡せりである。

中學講義

現行中學校令による全學科と、非常時日本にふさはしい實際科目を網羅し、全稿書下しの新講義を滿載して面目全く一新。本年度入學者には新編纂の英和辭典、歷史年表其他を進呈。一二年の獨學で完全な中學卒業の實力が得られ、專檢其他にも樂々と合格出來ます。

每月一回發行・學費一月一圓・八大附錄進呈 各一ケ年修了

高等女學講義

この講義錄でなら、家事や職業の暇に每日一二時間一年半の獨學で、學問も技藝も立派に高等女學校卒業生と同等の實力がつきます。專檢や敎員檢定も樂々と取れ、女子一代の敎養の基礎も作られます。折角勉强する以上、內容本位、效果第一の本講義に限ります。

每月一回發行・學費一月一圓 一ケ年半修了・六大附錄進呈

商業講義

每日一二時間一年半の獨學で完全に甲種商業卒業の實力がつく講義錄は我邦に本講義唯一つです。仕事の餘暇に樂しみながら勉强が出來て、商業學校の基礎知識と內外最新商工業の實務常識が得られ、就職は確實、立身も早く、實檢其他の突破も極めて容易です。

每月一回發行・學費一月一圓 一ケ年半修了・六大附錄進呈

內容見本進呈

望みの講義を明記して申込み次第急送す

文學講義 學費月一圓卄錢・一ケ年半了

建築講義 學費月一圓卄錢・一ケ年半了

政治經濟講義 學費月一圓卄錢・一ケ年半了

電氣工學講義 學費月一圓卄錢・一ケ年半了

法律講義 學費月一圓卄錢・一ケ年半了

電氣工學豫備 學費月一圓・一ケ年了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電話牛込三四五番

사람의밥되든쌀 機械의밥도된다

쌀이남아돌아가는의문의리유

米穀化學이란뭐냐

근일 신문지상에는 『미곡화학(米穀化學)』이란 새로운문자가 커다란활자로 나타나 독자의 주목을 을끌고잇다

그러면 이것이무슨말이냐? 물론신문을 잘읽는분은 대강아실것이나 다시쉽게설명하면 종래사람의 입으로만 들어가든쌀로 기계(機械)의 배를채울도리가업겟느냐 하는연구를 해보자는 말로해서할수잇다 파며생각해볼 이야기이다 주린창자에 좋을하든쌀을 현대물질문명의 괴물인 기계의 입에너어 기계의피(血)를 만들고살과뼈를 부치는데 쓰는석탄이나까소린과 마찬가지의 불때일 것(燃料)으로 『알콜』(酒精)이나 기타의기름가튼것을 만들자는것이니 대체그리유가 어듸잇는가 생각해볼바이다

×

옛날부터 이런말이 잇지안은가 쌀한알이 사람의입으로고히 들어가는 영광을 가지기위하야서는봄부터여름을지나가을추수까지도식상에올으는밥알이되기까지그소원을다하도록하느님전에빌고 또빌기를 마지안는다는 말이잇다 그런데 이런이야기를 생각하면 쌀의신세가 뒤바뀌는것도 꿈결갓다 할것이거니와비가과히 내릴세라바람이세일세라하고 봄내여름내 하늘을울어보며 아들날을 키우듯이피땀을니여농사짓든 농부들도 「벼농사는 무엇을 위한것이냐?」하는의문이 업지안을것이며 또아츰저녁식상에 올으는쌀알에대하는이들도 「사람의밥이 기계의밥이 되는수도잇느냐?」하는 의문이업지안을것이다 이것을신식문자로말하면 중대한 경제기구의전변(經濟機構轉變)은농업국의백성인 우리에게새로운 「쌀의 이데오러기-」(觀念)를 요구하고잇다 할만한 대한 변천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는 중앙정부의돈을 조차서 미국의화학적(化學的)연구를하기위하야새로히 만흔예산을세우고 실험하다는화자를식히어 연구를 식히기로하엿다 그러면 사람의밥이되는 쌀을왜 기계의밥으로 만들도록하자는것이냐 그리유를 정부당국자의 설명을들으면 조선에나는쌀의 소위과잉미(過剩米)를처분하는방법이라한다 그러면『과잉미』라는것은 무엇이냐? 글자대로해석하면「남아돌어가는쌀」이라는 것인데「과잉미」란말이 가진뜻이무엇이냐 하는것을 다시 생각해볼바이다 먹을대로 죽밥도짓고 떡도처서 먹고 배불리먹고남엇다는말인가? 다시말하면 조선에서나는 쌀로조선안에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엇다는말인가하는것이 문제이다 그러나사실은 결코그러치못하다

×

죽정부에서 말하는 과잉미란말은 우리가생각하는바와 가튼 『배불리먹고남엇다』는것과는달은뜻을가젓다조선서나는일천칠팔백만석의쌀중에서약반가량으로나아가야만 조선쌀이 갑이생기고 떨아서 조선농민도수입이나어지고크게는 조선 전경제계의 거래가 편다는것이나동경대판의 시장으로보면 조선쌀이 밀요이상으로만히건너가서그곳쌀갑을 떨우어곤란하니필요한만큼만 보내게하고저면에서필요치안타는약사백만석가량을가르처「과잉미」라고하는것이다 말하자면이「과잉미」라는것은 먹고남엇다는것과는 뜻이아주 달으다

×

독자들은 여기에 당연히 이런의문이 생길것이다 소위「남아돌아간다는쌀」은 조선사람이왜 먹지안코 현해탄건너 보내려는 것인가? 죽먹지안코남긴것인가또는 먹고십흔것을 못먹어서남는것인가? 이것은 다시설명할것도업시 여러분 독자들의살림과 눈에비최이는 세상의 살림을 돌보아라단하여도넉넉할 것이다 그러고 왜쌀이남아돌아가게되엿는가 하는근원인은 개화하여온수삼십년의 조선의력사적변천에 설명을구할수 밧게업슬것이다 (續)

元龜年事件을들어 煽動的檄文撒布

農組再建委員會라고署名

定平署員緊張活動

【新上支局廿一日特電】 이십일일새벽에 함경남도 정평군귀류면하남리(定平郡歸柳面河南里)송문리(松門里)내동리(內洞里)와문산면동천리(文山面東川里)중흥리(中興里)풍양리(豐陽里)등지에 내용이격렬한선전삐라를일천수백매가 산포되어잇고 또내용이가튼『포스타』도 수개처에 부러잇섯다 『삐라』는모필로 쓴것과 등사판으로 백인것의 두가지로 내용은얼마전에정평경찰서에 붓들려간지 몃시간만에 갑작이죽어버린 원귀년(元龜年)(元)사건을들어서격동식히는문구이외에 두서너가지조목을렬거한것이엇다 그러고삐라끗헤는 정평농민 조합재건위원회 (定平農民組合再建委員會)와 정평농민조합본부라고 쓰여잇섯다 정평경찰서 에서는 이급보를밧고 갑작이 긴장하야 『삐라』와『포스타』를배포한 인물을붓잡고저 맹렬한 활동을 하고잇다

和龍縣下處處에 士兵과衝突

雙方에被害가不少

【琿春】 지난 십이일 화룡현 삼도구 수비대(和龍縣三道溝守備隊)는 관내금장동(金場洞)에 약칠십명의 토병이 잠복하엿다는 정보를접하고 즉시출동하야 당지를포위하고 사격한 결과로 병비십이명을 사살하엿는바 동시에 길전대장(吉田隊長)은 다리에 총상을닙엇는바 생명에는 하등관계업다고한다

【琿春】 인견부대의배하웅삼부대(人見部隊配下鷹森部隊)는 훈춘현 백도산(琿春縣白刀山)북방약 백이십리되는지점 부근에약삼백명의 토병이 집결하엿다는정보를접하고 궁협부대(宮脇部隊)와협력하야 철저토벌하기위하야 지난 십삼일오전다섯씨훈춘왕팔발자(琿春王八脖子)를출발하여 목하 당지에진군중이다

【琿春】 인견○대배하대뢰호부대(人見○隊配下大瀨戶部隊)는 지난십일 오전왕청현십리평동방약이십사기로(汪淸縣十里坪東方約二四粁)부근에서 공산당(共産黨)약구십명과 격전한결과 공산당은 사체두개를유기하고 북방산림중에 도주하엿는바 동시에 밧기한소총 두자루, 권총한자루, 탄약오십개등을압수하엿다

【琿春】 인견○대배하대뢰삼부대(人見○隊配下大瀨森部隊)는 지난 구일왕청현화소포(汪淸縣火燒舖) 서방이십리부근일대에서 삼십명공산당과 격전한에 공산당 이십명을 사살하고소총 두자루등, 탄약백개를 압수 하엿는데 토벌군측은 변사한명과말 두필이 전사하엿다

行路에나타난 白衣가約三割

京城府社會課의調査

과보=지난십구일오후세시로부터 네시까지한시간동안 경성부사회과에서 시내 각방면의위원이며 경찰관과협력하여 시내통행인외색의(色衣)를 조사한것은 이십일일에 발표하얏는데 그중 개는다음과 서 평균색의가 백분의률십구이고 흰옷은 백분에삼십일이라한다

		男	女
鍾路五丁目	色衣	一,○四五	五一五
	白衣	二○六	一一五
東大門署前	色衣	[illegible]	九[illegible]
	白衣	三三八	一五六
蓬萊橋	色衣	九八九	一九七
	白衣	四三七	一○四
和信商會前	色衣	一,五三一	八五四
	白衣	一,三七三	二五八
桃花洞	色衣	二八○	一六七
	白衣	二四	一七九

春季鐵道旅客輸送協議會

려행계절을 알두고 조선과만주(滿洲)의 단체려객들의 『써비스』를 원만히 하기위한제구회송(輸送)과 안내사무소협의회는 이십일일부터 삼일동안 철도국(鐵道局)회의실에서 열게되엿다 만철(滿鐵)본사와 동경지사 만주국 철로총국(鐵路總局)북선철도일본조선만주안내소 조선철도본국등의 각안내게 사십팔명이 출석하여단체객수송에관한사무협의가잇다

鳩山文相邸에 多數靑年掩襲

【聯合東京電話】 이십일일오후팔시반경 국정음우정(麴町音羽町)에잇는 구산문상(鳩山文相)의저택에 이십여명의 장한이몰려와 구산문상에게 대하야 사직하라는 결의문을 랑독한후 격문을산포하야 소동을 이르키엿는데 급보를 바든대총서(大塚署)원십수명이 급행하야 검거하엿는데 그들은청년 일본동맹(靑年日本同盟)원전중근장(田中沂藏)외 이십여명으로 그들은의옥 사건에잡긴 문상에게대하야 사임을권고코자 몰려왓든것으로 판명되엿는데 계속하야취조중이라한다

세배돈을모아서

삼원오십전을보낸다고는 각지어린이들의정성

鬱陵島로모이는同情

【平壤】 평양부내남산녀자야학원(南山女子夜學院)어린이일동은 울릉도설재의 소식을듯고 적은정성이나마 힘을 가치하여 재양을맛난 울릉도동무 들을위로하고저 헷스나본래가 적빈가정의 가련한소녀들인만큼 엇절줄을몰을고잇다가 구력정초에 어든세배돈 삼원오십전을 모아가지고 십구일본사 평양지국을 방문한후 리재지에 전달하여달나고부탁햇다죽시본사를통하여 울릉도에발송하엿다

一般의同情金

▲六十二錢也 義城郡邑內安息日敎會幼年班
▲五圓也 橫城郡花城幼稚園兒一同
▲二圓也 尙州佛敎布敎所權英奐
▲二圓十錢也 本社金化支局
▲一圓也 元山海岸通六丁目朴長星
▲五圓也 大邱市場町達城館迫阿富(특히고아된동무와 임득이에게)

救世軍맵中將 今日全州로

방금입경중의 구세군참모장(救世軍參謀長)『맵북』씨는 이십이일아츰아홉시십분발남행렬차로 전북전주(全州)로향하리라한다

天涯孤兒로잘아 가는곳마다짓밟힐뿐

운명을저주하며눈물에잠겨

鍾路署에나타난少婦哀話

▲……이십일일오후세시경에 경관에게 끌려서 어둠컴컴한유치장으로 향하야 종로서사법게(鍾路署司法係)취조실충충대를 나려스며 한숨을우르러 느껴우는 어린녀자가잇섯다 호릿한몸동아리에 치마짜락까지 드리운 긴머리채 가느른눈섭아래 눈물을먹음은 두눈동자는 한번보매 얌전히 생긴녀자인것을 늣기게하는동시에 김흔곡절이 잇는듯십헛다 외모로는 겨우열육세박게 아니되여보이는 이녀자는 실로 벌서두어린아히의 어머니고열몃번이넘는 쓰린련애의 경험을가진무서운여자라고한다

▲…그는 영일군청하면 덕성리(迎日郡淸河面德城里)출생의정택이(鄭澤伊)(一名金小春)(九)로서 일족이 아홉살에량친을 일허버린고아의 몸이되여그곳리옥태(李玉太)의음식점에서 길리웟다 그러고 열여섯살때에 처음으로 성(生)에 눈이떠서백년을 기약한첫애인김재식(金在植)과의사히에가까지생겻스나 운명은어대까지던지 냉정하야 뜻아니한병으로 김재식은죽어버렷다 그러고다시

▲…열여덜살때에 첫사랑의상처가겨우 나아서 두번채몸을 마낀사나히와 의사히에도 역시애기까지낫스나 그사나히는 어대로 모양을감추어 버렷다

▲…그때부터 이녀자의 성(性)의순리는 궤도업시 계속되다가 금년일월초순에는 그를건저서 광명한생활을 시켜주겟다는홍군석(洪君錫)에게백원에팔려서 원한과미음과 어린시절의 짓발피운곳 남어잇는 고향을버리고 히망의서울로 뛰여올라왓다그리하여 그는시내황금정(黃金町)오정목안경식(安敬植)의 집에홍과함께 보금자리를 정하고오로지 그의아페 버러진새로운생활의아츰』을감격에넘치는 가슴으로서 대하엿다 그러나그것도일조동안의꿈─홍(洪)은 레지동(禮智洞)×번지 김춘식(金春植)과공모하고그여자를김춘식의셋재딸처럼호적을꾸며가지고 관철동(貫鐵洞)모음식점에 륙백원에 파러가지고십원는 김춘식에게 주고 정택이에게는 겨우오십원만 주고는 어대로인지 모양을 감추어버렷다 이모양으로 다시팔리워는것이다

▲……이때이것을 탐지한 종로서에서는 이십일 오후에김춘식과 정택이를 인치하야류치하고 취조를 시작한것인데동서에서는 홍(洪)의행방을 극력수사하는중이라한다 녀자는 경찰에 구호되엿스나 아직갈곳업서 해매이고잇다

神戶잇는同胞들 新春慰安會盛況

夜學校經營費를보태라고 義捐도百六十餘圓

【神戶】 신호에게류하는동포를위하야 일시적이나마 위안을 드리겟다는 뜻으로 신호우리협친회(神戶우리協親會)주최와본보신호지국급 조선인소비조합후원으로 신춘위안회를 금월십팔일 오후칠시 오치소학교대강당(吾妻小學校大講堂)에서개최하엿다 우리동포가 이만명이나거주하는 신호조선인 사회에서근래보기드믄 희한인만큼 입반인파는 대단하야 처각컨부러모여드는관중은 흠밀듯하야 광대한대강당은 터질듯이 립추의여지가업섯다 마장 감체를바드며 장치수(張致洙)씨의개회사를비롯하야 삼십여종의회순을 무사히맛치고 끗흐로 우리협친회장인 조석윤(曹石允)씨와 본보신호지국장 설동찬씨의 간단한인사가잇고 래빈으로 후원단체조선인소비조합장 최시풍(崔時豐)씨의축사로 성대히끗맛추엇다그중에도장한것은우리협친회에서우리자녀를위하야작년칠월에야학을설치하고강사로는금부수(金富守)양과 장치수씨의 열성으로 야학생이 백여명에달하야 성적이매우조으나 경영난으로 장차가문제임을 념려하여위안회석상에서 자진찬조가 잇슨것이다 찬조하신분 씨명과금액은다음과갓다고한다 (사진은위안회장과 노래하는야학생들)

一金三十圓 曹在允 一金十圓 尹予磨 李三柾 一金五圓 金消致 丁鳳倫 張致洙 金潤泰 姜點紅 朱龍錫 鄭宰祚 高原組同胞一同 金學述 一金三圓 金起鎬 李圭瑎 大西組同胞一同 朝鮮人消組 一金二圓 薛秉鎬 姜泰其 朴正圭 鄭宗均 朴弼圭 李明來 崔桂云 沈外俊 朴性泰 朴昌秀 金性淳 梁在律 金永守 宋元星 權泳五 梁奉祿 鄭錫椒 張宜仕 竹內工作所 朴春弼 李正守 一金一圓五十錢 李永董 李享九 一金一圓 金元基 金富守 崔在洙 李風宰 金時律 柳寅哲 姜璣錫 金泳烈 姜周哀 合計 一百六十一圓也

女學生群監視下에 誘拐犯審判밧는

피고는학공히죄상을고백

檢事는二年役求刑

젊은과부를 자기안해로 삼겟다고 달콤한말로 꾀여내어 돈팔십원을밧고 음식점 작부로팔아먹엇다는죄로 시내도화동(桃花洞)사백십이번지 최수동(崔壽東)에관한공판은 이십일일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어 민(閔)검사로부터 징역이년의구형이잇섯다 이날 이공판에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학생이 십여명이 방청하엿는데 모다를남자의 고약한행동에 분개한듯이귀를 기우리고 그피고의 사실진술을 듯고잇섯다 꼿가튼색시들의 매서운눈총을 마저가며 재판상앞에선피고는 어릿어릿 탕장한듯이 자기의정상을 아뢰와가지말하엿다 죽작년 십일월 이일에 시내도화동 박정수(朴貞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마츰 그때에 그집에와서 놀고잇는 시외룡강면현석리(龍江面玄石里)장모(張某)의장녀로 과부인 장봉암(張鳳岩)(二三)이라는 젊은녀자를 꾀여안해롭살아 백년을 해로하겟다하고 이리저리 며층유락을한다음에 시외신당리(新堂里)어느음식점에 다리고가서 돈팔십원을 바다먹고 팔아서 그돈은 동파 하로동안에 친구들과 술을먹어업서버렷다는것이라 판결은 오는이십일일이다

龍山署의刑事隊 東大門外로集中

◇楊州柴商慘殺事件續報

有力한端緖어든듯

귀보=나무장사 살해범인에 관하야 수사본부인 룡산경찰에서는 무슨유력한단서를어든모양으로 이십일일 오후에는 룡산경찰서형사일대가 동대문밧신설리(新設里)룡두리(龍頭里)돈암리(敦岩里)등지를 물셀틈업시삿삿치 뒤지고잇스며 동대문 경찰에서도 급자히 형사들이 긴장하야동대문밧 일대를 수사하는중으로 유력한혐의자의 체포도아마 갓가워진듯하나 아죽 적확한것은 두고보아야할모양이다

恩赦復權證明을 裁判所에바더라

必要잇스면證明交附

이월십일일 공포된 은사령에의하야 복권된자의 조사에의하면 총독부법무국의 명령으로 방금각재판소에서 조사중인데 이것이완전히 조사정리되는것은 명년이월까지에 귀부마주게 되엿다 그러나압흐로 일년동안에 복권되엿다는것을 신분증명 가튼데에 필요한사람은 재판소에출두하야 복권되엿다는것을 조사하야 증명하야달나면 곳재판소에서증명하여준다고한다

進行列車轉落

이십일오후여덜시오십오분경에 룡산역(龍山驛)을떠난북행열차(北行列車)가룡산경정(京町)부근을지날때에 기차의 승강대에 나섯다가 그만잘못하야 달리는 기차에서 떠러진사나히가 잇섯다그는 현장에혼도하야 인사불성의상태에 빠저잇섯는데 너섯시간만인 이십일일 오전두시경에야겨우 정신을차렷다 경성역에서는곳철도의원(鐵道醫院)에입원시켜 치료중인데 조사한결과 그는경남거창 (慶南居昌)에사는 박창복(朴昌福)(三三)으로 볼일이잇서서 상경하던 길에그러케된것으로서 마침생명에는 관계가업다고한다

巡査가辭職後 巨金橫領遠飛

市內各旅館을搜査

이십일 오후여섯시경부터 종로서(鍾路署)를 비롯하야 시내각서에서는 관내의려관을 수색하고활동중인데 탐문한바에 의하면경찰은 례산군례산면 삽교리(禮山郡禮山面揷橋里)에사는원순사 (元巡査)김기대 (金基大)(假名)의 행방을찻고 잇는것이라는바 사건의내용을 드르면그는얼마전에 순사를 사직하고나와서는 미곡의중개업을 시작하노라고하고는 가튼동리의 미곡상리모(李某)로부터 파려주겟다고하고 마는나락(籾)사천 여원어치를 파려가지고그만 행방을 감추엇는데 김기대는 그후경성방면으로 도망한흔적이 잇서서피해당한리모는 이십일 오후에 상경하야시내각서에의뢰하야김기대의숨은곳을찻는중이라한다

失戀과病을悲觀 新舞臺俳優自殺

녯애인의고향을차저와서

◇平壤座뒷방에서

【平壤】 십구일 오후십시경 평양부내욱정(旭町)평양좌 (平壤座)이층뒷방에서 신무대(新舞臺)배우 경성부통동 (京城府通洞)삼번지백파운(白波雲)(三八)이가다량의취잡는약을마시고목하 평양좌에서 공연중이던 희락좌(喜樂座)배우심승치 (沈勝治)에게괴로운목소리로『나는죽는다』고하여비로소 약을먹은줄알고·대소동을일으키어 부근장롱(長龍)의원에 떠메여다가 응급수당을 하엿건만 아모효과도업시 애인이라는박희순(朴喜淳)의일홈을 계속하여불으면서 저승의길을 밟고말엇다

×

백파운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신무대에 들어가 배우생활을개시한이래 각지로단니며 상당히인기를 끌엇다그러다가 사년전 평양 남산녀보통학교를졸업하고 갓혼신무대에 녀배우가 되엿든 평양부 죽전리(竹典里)음식점 영춘관 (永春館)을 경영하는 박영식(朴永植)=假名=의 딸 박희순(朴喜淳)(二○)과 무대뒤스 화장실속에서아지못하는 사이에 사랑을속삭이게되엿고 앗슬앗슬한련애부씬을연출하기 시작한것이다그러고삼년전 두사람은 부모와맹렬한반대를하고 결혼을한후효식(孝權)(三)이란 아들까지낫케되엿다 그러나 백파운은무서운폐병을 알키시작햇고 희순은사랑이 식어슴인지 백파운의병을치료할 비용을 준비한다는리유로작년십월 대구(大邱)영락관(永樂館)에배원을밧고고용녀로들어갓고 백파운은병을곳치기위하여 박희순의몸값을가지고함흥신상(咸興新上)으로떠나가게되여사실상두사람 사이에는 커다란파란이일어낫든것이다

×

그후백파운은 병과 실련을비관하고단니다가 이번에 평양에와서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와잇는옛날의애인이오 효식의 어머니인 희숙을차젓섯건만! 종시맛나주지안어자살하게된것이다

婦女를誘拐賣喫

룡산암근정(岩根町)삼십일번지 신수동(申壽童)(三五)은 일월 이십일경에 룡강면아현리(阿峴里)사백팔번지에서 음식점영업하는 서상우(徐相宇)로부터 고용녀를소개하여주마고페여 돈삼십원을 사긔하여가지고 도망하엿스며 뚝가튼수단으로 봉래정(蓬萊町)사정목오십구번지에서 음식점하는 진문선(陳文善)에게서도 돈십오원을 사긔한사실이 판명되여 지금룡산경찰서에 인치취조중이라한다

新興工作委員會事件 第一回公判延期

來三月五日에야開廷

【咸興】 국제공산당의중대한지령을밧고 흥남조질(朝窒)공장을중심으로 러화하려든 리문흥(李文弘)일파에속하는소위신흥공작위원회(新興工作委員會)사건리귀호(李基浩)이하이십팔명의제일회 공판은 오는이십일로결정 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사정으로 다시연기하여오는 삼월오일에 개정하기로되엿다한다

大村機飛行中止

【聯合平壤電話】 내한비행(耐寒飛行)연습차 이십일대촌(大村)비행장으로부터 평양을떠난해군기 십륙기는 이십일일귀환하려고 출발하엿스나 일긔불순으로 도중에서 모다중지하고말엇다한다

龍川農民社의 全郡巡回講座

【龍岩浦】 룡천군농민사에서는 농민대중의 의식훈련(意識訓練)을꾀하고 지난 십이일부터 십일간군순회를 일순(一巡)하얏다는데 이에 분산첨세에 친체되엿던 농민층은머지안은앞날에 농민사안으로 총집중이 되리라하며 동사에서는금후가일층 농민대중의 근본목표내지당면문제에 넘하야 밀사적실천을하기로 만반의 결심을가지고잇다고한다

本報愛讀者 甲戌年首 幸運券

當籤番號發表

【第卅二回】

二等十人

5618	33542
15862	9044
22396	298234
51343	113729
292234	9031

書簡文이면 무엇이고 알수잇는 破天荒의大景品付寶典

完備 好評 로 日本第一의 書簡寶典

◆組合式과新案節典式의長處를採取한
◆新時代에適應한新講義인無比의名著

本書는書翰文講習會에서十數年苦心한結果編成된最新式考案의理想的『尺牘講義』인寶典인今一次冊張을제치면아모리片紙쓰기서투른이라도生覺나는대로片紙를쓰會即席에서쓸수잇소、本書는書簡文의初步로부터說明하야片紙文의法則△日用文△商用文△候文△業書文△口語文△男女間愛의片紙△趣味片紙文其他모든片紙쓰는法과數百의文例를揭하야親切히譯述한바實로便利無比外에업슴

定價三圓이나大特價壹圓四十錢

二大附錄 付添 別冊附錄(袖珍判) 千字草書辭典 第二別冊附錄四六判 書法 一名代書人無用

實物寫眞

特別景品 無代進呈 流行型腕卷クローム側優美時計形方針指針正確保證付

●이特別景品은箱子에느어註文하시는書籍과同封包裝으로嚴重히小包郵便으로送付함

大景品進呈 『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하사本書註文하시는이에게는特別히本文書에記載된大普及上宣傳을爲하야實物寫眞의特別景品一個式을無代進呈

發行所 東京市小石川日向台町二 振替東京一六九一一番 大昭堂書店

院養療州海門專病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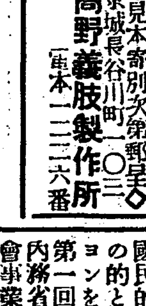
一、入院療養指針書一冊代要二十錢切手
一、本院入院案內書要二錢切手

黃海道海州南山外 院長 賀 金秉瑞 電話一七五・二七三 振替京一七○六九番

義手足 고무손발

手足업는人은悲觀마시고速히義手足을應用하시오◇天職을完全히하시오◇公業에在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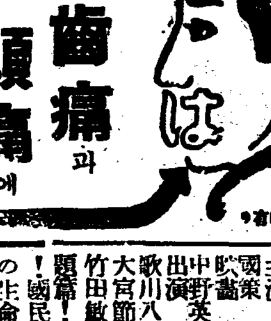
◇見本寄別次第郵呈◇ 京城長谷川町一○三 高野義肢製作所 電本一二二六番



頭痛 齒痛과 頭痛에 効散

먹으면낫는 神經痛鎭定、神經衰弱强健히 神經痛 루마치스等에奏效優秀함 泣顔도 笑顔으로變합

本舖 森田藥業所



◇二月二十二日부터特別大公演 劇團黃金座新春大公演第一週 ─二日交換─

◇朴英鎬作 大悲劇 鴛鴦船 全二幕 世上이다아지는鴛鴦를上演하는同時의熱淚를짜내는大悲劇

◇成出案 喜劇 結婚雙曲線 全一幕

독창 合唱 全春雨 全景希

成光顯、朴鐵松、全景希、石臥佛、徐一星、申恩鳳、羅品心、全春雨、崔仙、崔玉姬、以外總出演

廣德洞 桃花劇場 電話二三

當ル廿日特別大公開 待望三ヶ月滿都に於て未曾有の國民的大名映畫として斯界注視の的となり實に偉大たるセンセイションを捲起した問題國策映畫 第一回超弩級篇!!

內務省、警務局、警視廳、朝鮮社會事業協會御後援 朝鮮社會事業協會御推選 新興キネマ超弩級現代劇 原作 竹田敏彥 監督 內田吐夢入社第一回 主演 小杉勇入社第一回 國策映畫 警察官 全十卷 中野英治、藤野秀子、松本泰輔特別出演 歌川八重子、桂珠子、生方一平 大宮節子(京城出身)助演

竹田敏彥の名作になる非常時問題篇!世界に誇る日本の警察力!國民の生命と財產の保護にその生命を抛って辛酸努力する警官の職責と血涙滲む人間愛の相剋を貫いて描く壯烈悲壯の血劇!久ぞ國民必見の映畫國策具體化第一作!

大日本自由映畫プロ超特級作 阪妻關東撮影所製作 雜誌『ギャング』所載 原作 瀧川駿 監督 古海卓二 埋藏金三萬兩 全拾卷 阪東妻三郎大熱演 櫻木梅子、森靜子、岡田喜久也 堀川浪之助助演

永樂町一丁目 電本二三〇 中央館

不取不厭하는 地主
不當小作料請求訴訟이
一年中百件突破

【慶北】 경북각지방에는지주소작인간에 작료문제로 심히말성이되여 무식한 농민은악지주의 횡포로인하야 침쓸안식일할만안이라 갈바를찾지 못하고심히 불안공포에 싸여잇다한다이에대한상세한것을조사한바에의하면 예원동(禮院洞)리모(李某)이란지주는 녀부변소작인에대하야 횡포무쌍한 행동이만히잇슬뿐만안이라 더욱이 작년중송을제과한건수가수백여건에달하엿는데이제한두가지례를들면왜관면석전동에잇는소작인김도선(金道善)에게소작답오두락을주어 정조칠십오두로 하엿든바권연 총수확구십두중 작료오십오두를 납부한측 두세단말을제하고 이십오두부족을달아 작료청구소송(作料請求訴訟)을 제기하엿슬뿐만 안이라 약목면득산동김대섭(金大燮)에게 소작답구두락 일천팔백평중 밧(田)이 일백삼십평이나 포함되여잇는건답에 대하야 지주리수목은차칭 열마직이라고하여정조(定賭)일백오십말에 위약금삼십원어라는소작계약을작성하고그에다가다시소화팔년도지세십원록십원을밧고그논은봄보리(春麥)을가는논이니 이십사원사십전을 더내여이십오원을내라는별별수단을 다하엿든바 소작답에목이말은 권리김대섭은 밀경이십오원을 수도하게되엿든바 춘경과에 돌어가춘맥(春麥)을파종하라 한측 권소작인 박의용(朴義用)이가 나서서 팔년도지세십원록십원을 내가 납부하엿스니 내가 춘맥을갈겟다하므로 부득이 다시지주를 차저가서사정을 말한측권작인과 소송을하라는답변을하여돌이여보내면서 속히해결지여주겟다 하여노코 종시회답을안하므로 다시지주에게간즉 이미 춘맥을파종하엿스면내년도에 춘맥을파종하라 함부이오 약조금삼십원도 밧지못하고 소작한결과 수재로인하야 수확의겨감을예상하고 구장협회(區長協會)하에 총수확삼십일두중 십륙두를 작료로 납부하엿든바 지주 리모는 정도(定賭)부족작료입백삼십사두 대금 백이십원확실건및 위약금 삼십원합계일백오십여원과 청구소송 비용까지청부하여대구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엿다는바소작인은갈바를 찾지못하고 사법대서인에게 예소하여 밀경은 소송제기의준비를하는중이라한다

元山孤兒院
寄金請求訴訟
廿日元山法院서開廷
◇次回는三月六日에

【元山】 류보=원산고아원에 웅귀사는정희경(鄭熙慶)씨로부터 변권에금일백원을 권원장조종구(趙鍾九)씨압호로 송금하엿섯든바 원장을 사임한금년에도 조씨는아직도 원장이라는의미미례서 동고아원에 입금치아니하고잇다하야 현원장 김진국(金鎭國)씨는 그돈의 청구소송을 원산재판소에 제기하야이십일 동법정에서 원고측 국본(國本)변호사와 피고측송(宋)변호사가 출정하엿섯스나 조사의미료로 오는삼월륙일에 속개(續開)키로하엿다한다

五▲參圓 元山中央禮拜堂 ▲白米三斗 石隅洞禮拜堂 ▲貳圓 元山尹訓甲

楊平警察署活動
廿餘青年檢擧
內容은極秘密에부처

【楊平】 양평경찰서에서는약십오일전부터 무슨사건 인지는모르나 조선일보 양평지국장리정환(李正煥)씨외이십여명을검거취조중이며 계속하야 활동중이라한다

舊年末에施米

【大浦】 구정원조에한끼의밥을못엇고 허매이는 빈민의정경을 가긍히여긴 양양군당국에서는 도청으로부터 분배되지휼금(賑恤金)사십원과 장군수(張郡守)를 위시하야군청직원이추렴내인사십원 합팔십원을 권군구면에 균등분배하야 극빈자에게 배급하엿스며 도천면(道川面)당국에서는 면내 각유지들의용분의 의연으로어든 금액삼십삼원삼십전으로 쌀을사서 극빈자륙십여명에게 평균삼승오합(三升五合)식 분급하엿다한다

大塚自動車部
紛糾問題擴大
決裂에서告訴질까지
事件의展開를注目

【淸道】 청도 대총암길(大塚岩吉)씨의경영인 대총자동차부(大塚自動車部)는 도회의원 박재영(朴在永)씨와의 합의로 칠천원합자회사설립=발괴할계획에 동자동차부가수월간 량인의공동경영에 속하엿든바 출자금이천구백원을 차용증서로 만든것에동긔가되여 최근 합동에서결렬이생겨 대총씨의 단독경영으로옴기려는 긔미가 보임에이르러 박재영씨는 이에일천원위약금청구소송을 일으킨일이 잇섯는데 권괴대총씨는 돌연문제를형사에돌여 사오일전 박씨를상대삼아 업무횡령 고소를제긔한불상사까지 생겨 일반주목의초점이 되여잇는바 이문제가압호로 어떠케건개 될는지예측하기곤란하다고한다

李鳳吉氏美擧

【金堤】 김성경면리에거주하는리봉길씨는 남다른 특지를가진분으로 근방

生活難으로
七回改嫁한女子
간곳마다先幣金詐取
畢竟은留置場身勢

【江西】 지난십이월이십일평남강서군 동진면기양리(東津面岐陽里) 모려관에서 행색이수상한 녀자를 강서서에서인치취조한결과 그범행을 자백하얏는데 그는본적을 평양부양정에둔 김덕신(金德信)(三三)으로서일쪽이 남편을사별한후 두어린아이를 먹여살닐길이 업서서두루도라단니며 파부라자충하고 녀자업서 궁곳리남성을 구하는동시 중개인의소개로 선폐금을 사취한사건이 일곱곳인데 그금액은 십원으로 내지이십원까지의범행을하엿다하며 방금은 류치장신세를지고잇다고한다

十六歲少婦가
男便毒殺未遂
媤母의虐待에못이겨
男便죽이고脫出하랴고

【平康】 속담에 머리우에 쇠똥도 떠러지기전에 시집장가를 드린다는 격으로 조혼이나혼이 팔소부의 눈물겨운 애화하나이 잇다 평강읍내서변리 삼백구십일번지 조병률(趙炳律)의 맛며누리 류춘옥(柳春玉)(一六)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 사별한그 아버지생존시에 삼십여원 이란 소위선차돈을밧고 권괴 조병률의 아들인화(仁和)(一七)와 혼인을 정햇다가재작년 음력동지달경에 당시열네살되는춘옥과한살더먹은 조인화는 정식부부가되여 살아오든중 넉넉지도못한살님사리에 더구나 시모의학대까지 나날이 심하야 어린소견에도 남편놈죽이면 그시집을 면하고 나아가려니 생각하고 지난음력십일월 이십일경에 남편되는인화는 나무를가고 시부모도박게 나간틈을 타서화로에 언저노흔남편먹일밥그릇에다양재물을뎡어채너허두엇든바 나무하여가지고도라온 남편인 인화가그밥을먹모르고 두어술뜨다가 밥이 웨이리쓰냐는 말에그시모가 박게서드러와 밥을뒤적이다가 마층내 양재물이잇슴을발견케되자 사실이발각되여 급기야경찰에까지 알니게되여 경찰에인치되는동시 그간엄중한 취조를밧다가 지난십구일 일건서류와함께 청원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고한다

十歲小兒壓死

【河陽】 본월십팔일 오전십시경에 경북경산군 와촌면박사동(瓦村面博沙洞)김권이(金權伊)의 장남인 봉학(一〇)은 영천군대창면외길동에서 돌방아놀만들기위하야신한동(新開洞)산기슭에잇는큰돌을 옴겨가는곳에 여러아이들과 놀너갓다가 그만 끄러나려오는돌틈에 끼여 즉사한것이라한다

慈善會—作業
實況活寫撮影
乞兒養育에보태랴고
撮影後各地巡廻豫定

【仁川】 인천조선인자선회에서는동회의부속사업인제승(製繩)공장에 수용되어 잇는사십명걸아들의 양육비를 구하기위하야회장 김윤복(金允福)씨와 상무리사 류창호(柳昌浩)씨의 맹렬한활동으로 부모업시 방랑의길을밟브며 긔한에우는 걸아들의모든 정경과자선회의 구제를바더 제승공장에서 작업하는 그들의광경을 활영하야 인천서시사(試寫)를 한후일본 각지를순회할예정인데 동시에 인천의 각긔관과 상사회사 급상점등을 소개하기 위하야이십이일 부터 촬영을개시하엿다한다

讀者優待撮影

【豊基】 본사장긔 지국에서는 음력정초를계기로 시내대화사진관(大華寫眞館)과백운사진관(白雲寫眞館)에교섭하야 음력정월십일부터이월십일까지 본보애독자에게한하야사할인촬영을하리라한다

道議開會

【忠北】【淸州】 지난이십일오권열시부터제이회충북도회의를 개최하엿는데 의원이십일씨중음성(陰城)조동환(趙東煥)씨를제한외 전원 출석이엿는데회긔는 래이십칠일까지 팔일간이라한다

【咸南】【咸興】 함남도제이회도회를 오는 이십사일오전십시부터 칠일간에 공개하기로 결정되엿스며 의안으로는 구년도 세입출의 예산과또구년도부터 신설할 목탄검사수수료(木炭檢査手數料)명태알검사수수료(明太卵檢査手數料)등이주요한것으로서부실륙건이라한다

舒川
新春擲柶大會
▲時日 陰正月十一日正午
▲場所 吉山勞働組合
◇主催 東亞、朝鮮中央、朝鮮三支局
◇後援 吉山勞働組合

江華
全江華蹴球大會
▲時日 二月二十四、五兩日間
▲場所 吉祥公普校運動場
◇主催 吉祥公普校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江華支局

全州
申不出漫談大會
▲時日 二月二十六、七兩日午後七時
▲場所 全州公會堂
◇主催 申不出漫談後援會
◇後援 朝鮮日報社全州支局

枇峴
市民保健體操講習
▲時日 三月二日—同八日
▲場所 信成學校運動場
◇主催 朝鮮日報社枇峴支局

南原
新春懸賞飛鳶大會
◇時日 舊正月十一日午前十一時
◇場所 南原精米所後
◇主催 朝鮮日報社南原支局

金城
全金城擲柶大會
◇時日 二月二十四日(陰正十一日)
◇場所 蓬萊館
◇主催 朝鮮日報金城支局
◇後援 同順昌精米所

鐵嶺
擲柶大會開催
▲時日 二月二十五日、(陰正月十二日)
▲場所 金融會會議室
◇主催 朝鮮日報 [illegible]支局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 【五十】
李巴村 作　熊超 畵

절교 (六)

희경은 석왕사에서 정순의마음이 상수에게로 돌아간것을알고 정순이와갈린선후 금강산으로 혼자 도라단이다가 경성으로왓다.

희경은 사랑의 분묘와갓흔 경성의흙을 다시밟지안으려고 이를깨물엇스나 그의 발길은 모르는동안에 경성을 밟엇든것이다.

정순이가 정말 나를 버렷슬까?

하는것은 경성천지에 발을되려밀면서부터 다시생각나는일이다.

희경은 석왕사의 그날ㅅ밤일을 조케해석해보려고 애썻다.

자기가 상수몸에 상처를입힌것은 잘못이라치드래도 그것때문에 정순이가 자기를 악한사람으로칠까닭은무엇이냐?

가려든 금강산까지중지하고 상수를테리고 다시경성으로온것은 아모리 생각해도 정순의 마음이도라선것이안이라고 억지를쓸래야 쓸수업는사실이다. 더구나 정순이가 그 캄캄한 새벽길을 더듬어가서 상수의쓸어진 몸을찻는다는것과 사람들을불러서 끌고오는것과 정신이업시 잡바진 상수얼골을물로씨처주고 손으로어르만저주고 빵을 상수손으로비비고 더구나 내가잇는압헤서……

이런 일을 드르칙 생각해본다면 정순의마음이 상수에게로넘어간것이틀림업섯다.

비록 정순이가 상수의처지를 애처롭게녀여서―자기로말미암아 생긴비극이라는 책임관렴이엿다 치드래도 드러할수업는태도엿다

희경은 경성으로올라오면서부터 몃번이나 정순이를 차저가볼가 하고 망서리엿다.

그럴때마다 처순이 가슴에안기워서가든 상수의모양이눈압헤 나타낫다.

그 얼골에 상처를밧은 상수가 정순이 집으로가려는 자기를보고 비웃는듯햇다.

「안이,정순이는 지금 집에서 상수와 무슨이야기를하며 놀고잇는지몰은다!」

이러케 생각하고생각한끗헤 희경은 위협하는편지를 정순이게보냇든것이다。

그는 정순이가 그 편지를 본다면 자기집으로 차저오리라、생각햇스나 오기커녕 회답조차 볼수가업섯든것이다。

그것이 도리혀 정순이로하여금 자기를 단렴케한 일인지를 희경은 몰랏다。

그러나 희경은 일루의 희망이 부활되는 듯한것을발견햇다。

그것은 상수의 안해가 자살한후 신문기자와 정순이와의 문답에서다。

「글세 저는 꿈갓흔일입니다 강상수란이는 제가알기는하지마는 결코 그의 부인이옴독까지할만한 사이가된것이 안입니다。세상에서는 나를 오해하나 그것은 결코 근거업는일입니다。그리고 저는 강상수와 사이가 갓갑게될만한 처지가 못됩니다」

이런 기사를 바다볼때 희경의 생각은 다시 설레거렷다

「그러타 정순이가 그럴리가 잇나 정순이가 나를버릴리가잇나 상수와 사이가 갓갑게될처지가 못된다는것은 내가잇는까닭이다。내가 오해다。이 잘못을사과하자、

내가 정순이를 오해한죄를 무엇으로던지 사과해야한다

희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날밤으로 정순이를 차저갓다。

그러나 정순이를 만나지못햇다。이튼날 또갓다 그러나 또 만나지 못햇다。사흘、나흘、닷새를두고 날마다 가도 만나지못햇다。한달이 터지내는동안 희경은 매일 가다십히햇다。그러나 한번도 만나지못햇다。희경이의 모양은 가엽슨 정경이엿다。

그러나 희경이는 정순이가 방에잇스면서도 검보어머니를 식여서 거절하는일임을 몰랏다。

그러든것이 우연히 (그것은 참말우연이다) 오늘밤에는정순이가 뛰여나오며 마저드리는 것이다。

骨髓호루몽鐵製劑

네오부루도—제錠

讚美하자 健康을!

健康은人生最大의幸福이오最高의至寶이다人間은一時나健康이없어서는充分한活動을할수없는것이다그러나健康을讚美하게되는것은萬人이다出産하면서부터아는것이아니다어린아이나血氣가充溢한青春時代에는健康은享樂하면서도健康에對하여서는全然無關心하야自覺하지못하나健康을失한다음에비로소아는것이다病床에臥하여서는健康하든때를追慕하고頭髮이霜白하여서비로소青春의꿋다웁든時代를回顧하며戀慕해하는것이다

强健한肉體와健全한精神의두가지가우리들의光輝잇는人生이요가장意義잇는生活인것이다特히世上의文化가進展함에伴하야人間生活이더욱더욱複雜하여지고우리의生活力에過分의負擔이加하므로此로因하야心身의過勞함이過大케되는것이다

文化는原動化하고잇다此에種種原因을擧할수잇으니 交通機關의發達한結果는手足을奪케되고 徒步的의肉體鍛鍊의機會가 적어지는同時에日光의暴露의時間이적게되고家屋의構造가文化的으로되어서 寒暑에對한身體의自然抵抗力이弱하게되엇으며 被服類의便利한供給에依하야 너무나感覺本位로保護함이過하다 生存競爭劇化의까닭으로過勞偏重하야되고室內에서頭腦를쓰는時間이많게됨만치戶外에서自然과親하는時間이적게되엿다 特히都會地는人家稠密하야 汚染된空氣를呼吸치안으면안니되며 煤炭는蔽天하야 紫外線의効果도減殺되며 享受하는時間이僅少하다 이와갈이各種으로생각하야健康者는健康을保持助長하여야하겟고病者는速히恢復하야強健한肉體와健全한精神으로日日의激烈한社會戰線勝利者가되야永遠히健康을讚美하기를누구나所望하는바이다그러면 此의目的을 達키爲해서는 恒常우리가身體鍛錬과運動과 同時에理想的補血強壯劑가必要케된다 이것은世評잇는네오부루도—제錠으로서目的을達할수잇으니左記簡單한文字에依하야잘알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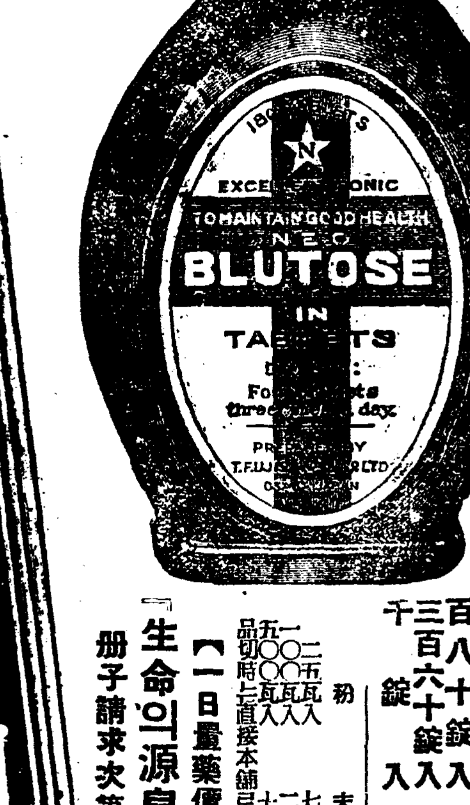
一、骨髓成分(호르몽)에依하야赤白血球의增加와顯著한血色素量의激增을招來하야强大한造血作用을營함

一、骨質成分에依하야骨骼의發育을助長하고造血機能을盛旺케하며新陳代謝를旺盛히하야老衰를防止함

一、細胞及腦神經組織의必需成分인含燐蛋白質에依하야血液의新生과生體蛋白의消耗를補給하고全身의榮養을佳良케함

如斯히네오부루도—제錠은一劑로서더구나少量으로서臟器製劑칼시움及鐵製劑아미노酸及蛋白製劑等의眞髓를集積하야써綜合的効力을發揮하야食慾增進榮養向上發育助長等의總歡한効果와純正學理에立脚한點에劃時代的의造血促進劑로서의眞價가잇고信用이잇는醫學大家로서絕讚과實用을받는所以이다

適應症
貧血諸症・老衰防止・腺病質
神經系疾患・生殖器機能障害
榮養障碍・비타민缺乏症
結核諸疾患・骨骼發育障害
小兒發育期・外科手術前後
妊娠産褥期・重病恢復期



藥價低廉
錠劑
百八十錠入 一圓
三百六十錠入 一圓八十錢
千錠入 四圓五十錢
粉末
一二五瓦入 七十五錢
五〇〇瓦入 二圓七十錢
品切時는直接本舖로申込하시요

【一日量藥價約六錢】

『生命의源泉』이란 冊子請求次第進呈

血과肉과骨이된다

京城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京城支店
本店 大阪市東區道修町

下切價平「基礎知識
其目的과影響如何 (十九)
徐椿

二十七、米國의金賣買價格

米國이 新平價를 金一온스에 對하야 紙幣三十五弗로 했다는 것은 이미 傳한바다。米國政府의 金買上及賣却의 價格은 이것을 基準으로 해서 定한것이다。買上價格은 基準價格에서 鑄貨手數料를 減한者로 定하고、賣却價格은 基準價格에다가 鑄貨手數料를 加한者로 定한다고 했다。이 事情을 米國이 平價切下를 斷行하든 一月三十一日의 電文대로 紹介해 보면 如左하다。

「今番大統領이 새로 制定한 弗平價改定法에 基하야 四〇·九四 파아센트의 弗平價切下를 斷行한 結果、米國은 그通貨를 並히 爲替政策實施上、從來와 가치 單히 金의 買上을 行함에 그치지 안코、다시 弗爲替의 變動에 따라서 또는 國際貿易上의 必要에 應하야 一定價格에 依하야 金의 賣却을 行하야 世界市場에서 自由로 金의 賣買를 行하게 되엇다。그리고、當分間 右賣買價格은 이러케 定한다。即、買上價格은 基準價格三十五弗에서、鑄貨手數料로 그 四分의一파아센트를 減한者로 하고、賣却價格은 基準價格三十五弗에다가 그 四分의一파아센트의 鑄貨手數料를 加한者로 한다。이것으로써 金의 買上、賣却을 實行한다。」

◇

右紹介의外分에서 注意할것은 여기서、買上又는賣却이라는 데는 外國으로부터의 金의 買上과 同、外國에의 金의 賣却을 包含하는 것이다。그러고、外國으로부터의 金의 買上은 平價切下前에도 斷行해 오든바이나、外國에의 金의 賣却은 切下前에는 안튼 일이다。그런데 特히 이 點은 注意를 要할 點이다。

◇

即、米國政府의 說明에 依하면、前記 紹介의 分에 잇는바와 가치 「弗爲替의 變動에 따라서、國際貿易上의 必要에 應하야」 海外에서 金을 사드릴 必要가 잇슬 때에는 買入하고、海外에다가 팔 必要가 잇슬때에는 賣却한다는 말이다。그러기 때문으로 今番의 弗平價改定實施에 對하야 米國의 大藏當局은 이것에 依하야 米國이 舊金本位制를 부치에 違反된다는 解釋에 對하야는 如左한 說明을 부친것이다。即、「米國政府가 輸出을 爲하야 金을 賣却하는것은 弗의 對外價値의 變動如何에 依할것으로서、今後、假使、賣却의 必要를 生할지라도、그量은 얼마 안될것으로 생각한다。」即、萬若、弗爲替의 時勢가 對外支拂을 하는데 잇서서 外國爲替를 買入하는것 보다는 金의 現送을 行하는 便이 有利한 點에까지 達한 境遇에는 金의 賣却을 行한다。따라서 金의 買入을 行한다。

◇

그러면 對外支拂을 爲하야 金을 賣却하는便이 外國爲替를 사서 支拂하는 便보다 有利한 境遇란 어떠한 境遇나?하면、實例、米英關係의 例를 드러 說明하면 如左하다。

(一)米英爲替一磅對五弗時에는 弗紙幣三十五弗을 金一온스로 바구면 七磅이 된다。

(二)倫敦서 金一온스를 七磅에 팔어가지고、一磅對五弗의 時勢로 弗貨로 바꾸면 弗紙幣로 三十五弗이 된다。

故로、倫敦金塊時勢가 七磅이오、米英爲替가 五弗(一磅에 對하야)이라는 限까지는 米國의 對英支拂者가 米英爲替時勢에 依하야 磅紙幣를 買入하야 支拂하나、米國에서 金을 가지고、가서 英國倫敦市場에서 팔어서 支拂하나 그利害가 가틀것이다。그러나、

(一) 倫敦金塊時勢는 如前히 七磅인데、米英爲替는 六弗으로 되면 三十五弗의 英貨換算價格은 五磅八三밧게 못될것이다。(米英爲替相場의 騰貴)

(二)、倫敦金塊는 八磅으로 騰貴햇는데、米英爲替만이 如前하다고하면、米國에서 金一온스를 英國으로 가지고 가면 八磅이 되나、弗紙幣三十五弗을 英國으로 가지고 가면 七磅밧게 못된다。(倫敦金塊騰貴의 境遇)

따라서 이런 境遇에는 政府에서 金의 賣却을 斷行하는 것이다。

◇

그리고 三十五弗의 一파아센트의 四分之一 即 三十五弗의 四分之一파아센트는 實數로 三·七九仙이다。故로 米國政府의 金買入價格은 三十五弗에서 三·八九仙을 減한것 即 三十四弗九十六仙一이오、同金賣却價格은 三十五弗○三仙八九이다。

▲第十八回訂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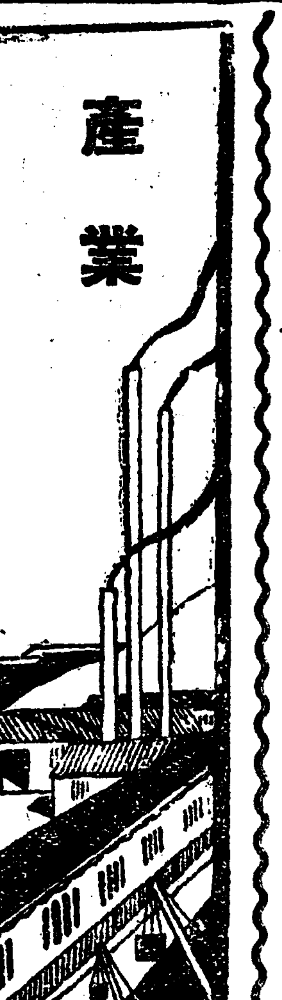
誤=「新平價에 依하면 一표랑이 ○·五八九五四랑이다。」(十八回第二段第九行)

正=「新平價에 依하면 一표랑이 ○·○五八九五四랑이다。」

▲誤 1표랑=0.0392923弗(十八回第三段第八行)

▲正 1표랑=0.0658932弗

產業



朝鮮藥酒眞價 葡萄酒를凌駕
將來는國際飲料化
本來의風味保存이第一眼目
(上) 釀造法改善이急務

朝鮮에는 燒酎와 藥酒와 濁酒가 代表的酒精飲料이다

燒酒는 麴子로 粳米、玉蜀黍、高粱又는 粟等의 穀類를 醱酵케하야 이것을 蒸溜한것으로 日本燒酎와 比較하면 酒精分은 적으나 使用原料에 依하야 特殊의 風味가 잇는것이 그 特徵이다。그러나 近年은 臺灣의 糖蜜을 原料로 하는것이 만어 自然히 이 特徵이 업서지는것은 經濟的趨勢라고 하나 遺憾이라 아니할수 업다。

濁酒는 麴子로써 米를 醱酵케한 低級醸造品으로 一般民衆의 酒인 同時 食料品이다。原料米中의 澱粉의 糖化가 不充分하고 酒精分의 含有量도 적어 一醉를 買하는 同時 배도 불너 米飯에 代할만한 營養價値도 잇슴은 다음 分析表에 徵하야도 알수 잇다。

濁酒分析表 比重○、九九七一、○五 酒精分 一六、二一五、○二 總酸○、四七二一二、三四 엑기스分 三、二五一、二三、二五 糖分 一、○○一○、一六 인데 酒精分은 大體六%內外 엑기스分 10%以上 糖分도 一%前後가 普通이다。

燒酒는 純然한 致醉飲料이나 濁酒는 半은 食料品의 致醉飲料로서 兩者共히 一般民衆의 飲料임은 말할것도 업는터이오、大體에 잇서 氣候關係上 燒酒는 北朝鮮에서 愛用하고 이에 反하야 南朝鮮에서는 濁酒를 조와한다。

×

藥酒는 朝鮮의 色彩를 가장 具備한 嗜好品으로서 中流以上社會에서 愛用하는 터인데 品質도 玩味할 價値가 잇다。科學的研究에 依하야 이것을 改良하면 그 前途에 好果를 期待할수 잇슬것이다。藥酒는 本來 麴子로써 糯米를 醱酵케하야 만드는데 미리 粳米를 써 粥을 만들고 이것을 糯米와 混合하야 다시 醱酵케하는 點이 日本酒와 相似하다 麴子는 中國麴에 相似한것이나 決코 가튼것은 아니오 日本麴과도 다르다。

그러나 醸造法은 日本酒와 相似한 比較的 原始的幼稚粗笨한 方法이다。從하야 藥酒의 品質은 區區하야 一定치 안코 大槪는 劣等으로 或은 酸味가 만어 참아 먹을수 업는것까지 잇스며 貯藏에 不堪함으로 晩秋로부터 初春까지 主로 冬期中 醸造發賣하는것이 만흔 現狀이다。그러나 適當히 釀成된 朝鮮酒는 日本酒에 比하야 多量의 糖分과 酸을 含有하야 甘酸이 서로 調和되야 多少렵렵한 맛이 잇다。酒精의 含有量도 適當하야 甘 辛 酸의 三味가 混然融合한 醇味를 갓고 잇다。淸酒에 銀錬된 飲酒家에게 不滿히 생각되는 點이 即 藥酒의 穩健濃醇한 長所이며 이것이 多數人이 조와하는 素質이다。濁米를 原料로 製造하는 酒에 米酒 紅酒 及 糯米酒等이 잇는데 모다 再製酒 或은 混成酒인데 風味品格은 藥酒를 따를수가 업다

右와 가티 藥酒는 米의 酒(라이스와인)中의 白眉이고 覇王이다 其三味一體의 渾然相融合 調和한 風味는 반드시 一般人類의 嗜好에 迎合하야 國際飲料로서 愛用될만한 醇味가 잇는줄로 밋는다 今日에 直藥酒의 眞價가 認定되지 안코 下等의 淸酒以下로 賤待를 밧고 잇는 原因은 市場에서 파는것의 大部分이 劣等品인까닭이다 間或 優等品이 發賣되어도 貯藏販賣中 漸次 酸敗되는 結果 市場에서 販賣하는 藥酒가 酸敗酒의 別名을 쓰게 되다。醇良한 藥酒는 決코 一般이 생각하고 잇는 것과 가티 酸敗酒가 안인것을 斷言한다。

×

上等의 藥酒를 朝鮮料理와 아울러 鑑味할때 비로소 兩者의 美味眞味를 感得하고 兩者의 眞價를 알수 잇다。朝鮮料理는 中國料理와 가티 기름지고 日本料理에 比하야 맛이 조코 고추其他 양념을 配合한 點에 特徵이 잇다。그리고 一面 佛國料理에 相似共通한 點이 잇다고 思한다。從하야 藥酒는 佛國式의 洋食에 맛는 白葡萄酒에 代할수 잇다고 信한다。冷藥酒는 西洋料理에도 조코 드어서(熱燗)日本料理에도 조타。그럼으로 藥酒는 東西兩洋人의 嗜好에 適하야 國際飲料로서 推薦할 價値가 잇다고 思한다。

日本人은 이것을 「아사리」한 淸酒、西洋人에는 淸涼鮮醇한 「라이스와인」으로서 三味一體의 眞味를 賞飲愛好케될것이다。獨逸技師에게 淸酒와 藥酒의 優劣嗜好를 물엇더니 同技師는 淸酒의 杉木香을 실다하고 藥酒의 醇良을 賞讚하얏스며 또 米國化學者가 京城滯在中 藥酒를 試飲하고나서 賞讚한 일이 잇다 한다。이 等의 實例에 徵하다라도 藥酒가 西洋人嗜好에 迎合할 素質이 잇슴을 알수 잇다。

×

藥酒의 醸造法이 近來 顯著히 進步改良되엇다 하나 아즉도 科學的으로는 缺點이 만히 잇서 製品의 品質이 統一치 못하고 劣等强酸性의 것이 만호며 못처럼 優良品이 되어도 取扱과 貯藏法이 適當치 못한 結果 短期間에 酸敗된다。醸造法을 合理的으로 改良하고 製品의 統一을 圖하며 適當한 貯藏方法을 講究하면 藥酒를 耐久性이 잇게 하기는 決코 困難한 일이 아니다。

總督府淸水技師가 永年藥酒의 醸造法工業的 改良研究에 從事하야 麴의 製造、醱製造로부터 水洗其他用水等各方面에 亘하야 改良하고 當業者를 指導하야 그 業績이 볼만하야지만 藥酒에 關한 科學的研究는 겨우 微生物學的 方面에 止하고 醱酵醸造本體에 關하야서는 皆無同樣이다。同技師는 工業的指導方針을 定키에 臨하야 參考資料에 乏하야 不自由하얏슬것이다。今後 朝鮮內 藥酒의 工業的 發展을 助長키 爲하야서는 여러가지 研究가 必要한데 將來 三味一體의 本來 醇良한 面目을 發揮케 하야 藥酒를 國際的 飲料로 함에는 細菌、醸造及理化學的 三方面으로부터 充分히 研討할 必要가 잇다。淸水技師는 改良指導에 依하야 目下 生産되는 藥酒에 就하야 「改良式藥酒」는 香味共히 在來의 것에 比較하야 「앗사리」하야 淸酒에 近似케 되엇는데 이것이 果然 改善인지 改惡인지 異論이 만타」고 말하고 잇다 日本人技師의 指導下에서는 淸酒式藥酒가 되어 날것은 免치 못할 趨向이라 하겟다

砂糖統制案
米大統領、議會에教書提出

米國大統領루즈벨트氏는 二月八日 議會에 對하야 砂糖生産을 嚴重히 統制하는 案에 關한 教書를 보내엇다

教書要綱

米國에서 砂糖의 生産統制가 問題되어 잇슴은 처음듯는 일이 안이다 昨年來 屢次 當業者會議를 열고 協議하고 잇든바 今回는 政府案이 成案되엇다 이제 議會에 提出된 大統領의 教書에 對하야 其要點을 들어보면

一、米國의 勢力範圍內에 잇는 砂糖産地에 對하야 生産配當을 하야 其暫定的配當額을 定할事

一、括栗及甘蔗를 棉花、小麥其他 農村救濟法에 依하야 規定된 基礎的重要商品中에 加하야 砂糖에 對한 加工稅를 徵收할事

一、規定의 生産配當에 따라 生産高를 制限하는 農家에 對하야 補償金을 支拂하고 其基金으로서 前記加工稅를 充當할事

一、加工稅賦課에 基한 砂糖消費의 負擔을 補償하기 爲하야 加工稅에 比例하야 砂糖關稅를 引下할事

一、加工稅率은 砂糖一封度에 對하야 半仙을 超過하지 말고 또 砂糖關稅引下率을 超過하지 안는 範圍로 할事—等의 諸點이다

生産配當案

生産配當에 對하야 보면 이는 一九三四年産粗糖에 適用하는것인데 實施期日은 未定이나 아마 今年一月一日에 遡及하야 實施되리라고 한다 生産配當이 單只 米國內뿐만이 안이라 其勢力範圍下에 잇는 玖馬等의 外國에 밋치어 잇는것도 注意할 點인바 其配當額을 「위렌·그레」商會發表의 一九三三年—四年度生産豫想及一九三二年—三年度生産高와 比較하야 보면—(單位千噸)

	大統領案配當額	一九三三—四年生産豫想	一九三二—三年生産高
米國甜菜糖	一、四五〇	一、四五〇	一、二〇七
루이자나及후로리다	二六〇	二二五	三三一
하와이	九三五	九一九	九二五
포—트리코	八二一	八七六	七四五
필립핀	一、〇三七	一、四〇〇	一、一四五
玖馬	一、九四四	二、三一五	一、九九五
바—진群島	五	七	四
合計	六、四五二	七、一九二	六、二五二

即右에 依하면 新配當案은 其合計에 잇서 今年度生産豫想에 比하야 減産이되나 昨年의 産額에 比하면 增加하야 잇다 그뿐 이안이라 米國本土의 産額은 「위렌·그레」商會의 豫想대로 或은 其以上에 增加하여 잇고 單只 필립핀、玖馬等의 外地또는 外國에 對한 配當額이 豫想高에 比하야 顯著히 減하야 잇다 이比較와 갓다면 玖馬等地에서 不滿의 聲이 이러나지 안흘가 그러나

供給高調節

어느便이든 大統領의 말을 빌어 말하면 「新配當制」는 이에 依하야 如何間 當座는 消費高에 對한 市場供給高를 調節할수 잇고 또 米國의 新通商條約交涉에서 兩國共通의 利益을 爲하야 現在의 配當範圍를 增加할것에 考慮할것이다」라고 述하고 잇다 大統領은 「近近再開되는 玖馬와의 新通商條約交涉에서 」 이에 依하야 生産高를 米國市場의 需要에 基準으로할수가 잇다」라고 하는것인데 現在 昨年의 米國砂糖消費高를 一昨年에 比하야 增加한 事實도 잇슴으로 新配當案에 依한 生産의 增加가 豫想되어도 市場에는 큰 影響이 업슬지도 모른다 또 이 配當案에 伴하야 補償金支拂 加工稅徵集 輸入稅引下等의 準備를 할 것은 이 案의 實行上의 基礎를 鞏固히 하는것이다

朝鮮米管理
影響이如何
農民、商人、金融界

日本의 朝鮮米에 對한 反對空氣가 朝鮮으로부터 反對氣勢가 猛烈하야 얼마큼 緩和되는 傾向이 잇다고 한다 그러나 目下의 情勢로 본다면 日本에서 方式을 어떠케 고치드래도 結局에 잇서는 朝鮮米에 對하야 必要以上의 數量을 막게될것만은 거의 確定된 狀態이다 따러서 買上管理와 所謂 自治統制案이 實現케될 運命에 이르러잇다 이러케 되면 그結果가 어떠케될가 目下에 特別會計設置方法과 自由移出數量 決定等의 事務折衝이 남어잇서 이 運用方法如何가 注目을 끄으는 同時에 이方法에 따려서는 法制的統制와 何等 달을것이 업다는 觀測이 잇다

×

이러케될때에 朝鮮經濟界에 밋치는 影響이 어떠할가 다시 말하면 朝鮮內 農民을 비롯한 商人、金融界의 打擊이 어느程度에 至할가 이것은 詳細한 內容의 發表가 잇슴으로 아즉 말키어려웁다 그러나 大體로 買上管理와 所謂 自治統制案만 가지고 생각하드래도 打擊이 相當할것이 無疑하다고 한다 即

×

▲먼저 農民의 事情을 보면 쌀팔어서 좁쌀을사먹는터이다 日本에 移出될 數量이 限定됨을 뿐하서 그 限定以上의 쌀은 朝鮮內에 처저잇게된다 이쌀을 總督府에서 買上한다고 하지만 自由移出이 못되는 만큼 조선쌀을 떠러뜨리는 弱材料가 될것이 틀님업다 그럼으로 農民으로서 밧는 打擊이 大할것은 勿論이다

×

▲商人은 얼마만한 影響을 바들가 이亦是 쌀을 土臺로한 朝鮮經濟임으로 조선쌀갑의 低落을 伴하는 購買力의 減退로 큰影響을 바들것이다

×

▲다음에는 金融界로 朝鮮米價의 低落이란 威脅이 생기는 結果 不動産의 擔保價値가 떠러지고 또 流通이 不圓滑케될것이다 그래서 貸出標準과 金利도 以上의 危險을 加重케될것이오 그러고 移出量制限으로 米荷爲替가 激減케될것이며 더구나 米穀金融의 萎縮을 보게될것이라고 한다

日本産毛織物
上海市場에躍進

【商通上海電話】最近上海에 輸入되는 日本産毛織物은 逐月 增加하야 가서 英國의 牙城에 肉迫하려는 形勢를 보이고 잇다 即今年 一月中의 輸入高는 七百餘梱

全南의明礬鑛
아루미늄의原鑛으로
本格的으로採堀開始

日本에서도 最近아루미늄의 需要가 益益만허저 特히 飛行機等의 軍需品에는 不可欠할 輕金屬인것은 말할것도 업는바 國內에 生産이 欠乏하야 海外의 輸入에 依하야 需要를 補充하여 왓는데 木浦府內山手町 水本要次氏 所有인 海南郡內의 聖山鑛山에서 明礬鑛이 産出되어 아루미늄原鑛으로서 世界的으로 有名하게 된것은 最近의 일이다 現在의 聖山鑛山은 明礬鑛의 採堀設備를 完了하야 一日의 採鑛約百噸 年五千噸인데 이번 日本沃度株式會社의 經營에 넘어가게 되어 十七日 關係者는 木浦商工會議所를 訪問하고 經營移讓의 人事를 하얏다 例의 明礬鑛石은 木浦를 經由하야 橫濱에 보내어 橫濱臨港埋立地內에 十萬八千坪을 가진 日本沃度橫濱工場에서 아루미나를 抽出하고 다시 이를 長野縣北安曇郡大町의 工場에 보내어 이工場에서 아루미늄을 만드는데 海南의 明礬鑛은 本格的으로 躍進期에 드러간것이다

增設新設로 製粉界混亂

朝鮮內製粉界는 麥粉의 朝鮮內消費增加 滿洲輸出有望 朝鮮麥의 增産好感에 昨秋製粉의 一千바렐擴張에 刺戟되고 滿粉의 沙里院의 五百바렐工場新設等에 依하야 今春新麥期의 朝鮮內製粉能力은 八百五十바렐에서 一躍一千八百五十바렐에 擴張되어 年産額二百五十萬袋로 되어 移入地로부터 輸移出地에 一變하게 되엇는데 今回다시 今秋까지에 製粉에서는 仁川齋藤精米所 一部를 改造하야 五百바렐製粉工場化하는 同時에 來秋까지에 平壤係系大平醸造工場隣接地에 同樣히 五百바렐工場을 新設하기로 決定하고 目下極祕裡에 準備中이고 一方仁川加藤平太郎氏도 元豊粉支配人河內氏의 計劃에 基하야 花町新埋立地에 第一期計劃五百바렐의 製粉工場을 來年度末까지에 新設하기로 決定하엿슴으로 來年度末現在의 製粉은 年産額은 四百七十萬袋로 되어 年間二百萬袋假量의 輸移出化를 하가로되엇다

製絲協會總會
日本內地繭使用考慮

朝鮮製絲協會에서는 二十日午後一時부터 製絲會館에서 古庄總督府農政課長臨席下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出荷制限除外問題에 關하야 東山委員의 經過報告를 堀田氏(東洋製絲)로부터 하고 日本內地移入繭防止問題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結局日本內地繭은 될수록 使用치안키로 協議하엿는데 最近의 日本內地移入繭은 朝鮮繭의 出廻와 日本內地及朝鮮繭의 價格如何에 依하야 다르나 昨年은 約一萬貫이다 그리고 除外된 朝鮮産生絲에서도 日本內地移入繭原料生絲는 日本內地同樣三割의 出荷制限을 밧게되엇다

中小商工業者
振興促進圖謀
京城府서規程制定計劃

京城府에서는 土産品及工業生産品及機械等을 發明或은考案한者에 對하야 獎勵金을 給與하야 生産工業의 助長과 中小商工業者의 振興促進을 圖하려고 目下內務課勸業係에서 이規程을 制定하려고 計劃中인데 新年度豫算通過後 實現하리라고 보인다

外國郵便爲替取組

今年一月中 全朝鮮各郵便局所에서 取扱한 外國郵便爲替의 振出件數는 七百二十六件 그金額三萬六千四十圓이며 또拂渡件數는 二千九百二十七件 그金額八萬八百四十六圓으로 差引四萬八千八百六圓은 一月中 外國으로부터 朝鮮에 流入한 까닭이다 그리고 이것을 前年一月中의 取扱高에 比較하면 振出金額은 九割(强) 또 拂渡金額은 三割八分(强)의 各激減이다

慶南製紙에福音
製紙原料에棉莖使用은
原料不足에一大喜消息

至今까지 廢物과 가티 取扱되고 잇는 棉莖이 加工되어 製紙의 原料가 된다함은 棉으로서 자랑하는 南朝鮮一帶에 無上의 喜消息인바 이 有利한 狀況을 慶南紙原料에까지 延長하기로 되엇다 即現在 慶南에서는 製紙에 使用하는 楮는 三十八萬斤에나 達하는바 實際道內에서 供給할수 잇는것은 二十八萬斤으로 殘餘는 他道에서 드려오고 잇섯다 그런데 棉莖이 楮의 代用이 되게 되는 今日 年年一千六百萬貫의 棉莖을 産하는 慶南의 製紙原料의 前途는 期待된다 製紙原料인 楮一斤十二錢에서 十五錢을 要하고 잇든것이 거이 無償에 갓가운 棉莖을 利用하게 되는 때에는 全朝鮮에 廉價의 紙를 提供하게 될것이다

新京土建躍進
材料殺到의氣勢

【商通新京電話】滿洲國首都新京의 躍進은 놀만한것이 잇는바 解氷을 機로 土建界는 다시 繁忙한 活況을 모이고 잇서 이미 其準備에 奔忙한 中이다 新京驛에 殺到하려하고 잇는 今年度新京驛到着土建材料車數量을 示하면 如左하다

木材	一、三〇〇車
碎石	一、四〇〇
洋灰	三一〇
石灰	二二〇
金物器材	一三〇

그런데 一車는 三十噸에 該當한다

國有林野入札
拂下

▲箇所 京城府天然洞四의三 ▲面積 三反八畝步 ▲地上 赤松〇、一立方米 ▲產物 此本數 二十六本 右一括하야 競爭入札賣却하고 買受希望者는 朝鮮總督府殖林局林政課에 入札人注意書、契約書案圖面及實地를 熟覽하되 昭和九年二月二十七日 午前十一時까지 朝鮮總督府殖林局林政課長室에서 各自의 見積金額의 百分五以上入札保證金을 添付하고 入札하야 卽時開札한다 이契約은 朝鮮總督府殖林局長이 擔任한다고

船舶安全法實施
七月一日될듯

日本、臺灣에서 三月一日부터 實施決定한 船舶安全法의 朝鮮施行은 八月一日까지에 實施하라고 目下準備中인데 七月一日부터 實施할 規模이며 法文은 日本과 거의 同樣이라고 한다

預金增、貸出減
京城組銀狀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查】京城組合銀行二月十五日帳末은 現在預金一億三千四百四十四萬五千餘圓、貸出一億一千四百二十七萬七千餘圓으로 一月末보다 預金五百七十二萬八千餘圓增、貸出五百八十萬六千餘圓減、前年同期보다 預金五千三萬九千餘圓、貸出一千二百四十八萬五千餘圓의 各增加이엇다

移出入 港別貿易

一月中의 朝鮮對日本貿易移出入品價額港別은 아래와갓다

	移出	移入
仁川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雄基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龍岩浦	—	—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米倉在米數量
百四十萬餘石突破

米倉會社의 十七日現在 在庫米는 百四十二萬八千三百十三石으로 畢竟 百四十萬石을 突破하야 前年同期보다 七十六萬九千九石의 增加이다 (以下單位石)

△釜山 二一九、七〇一
△木浦 一五三、〇五七
△群山 三九八、八二五
△仁川 四〇六、〇二二
△鎭南浦 二五〇、七一八

釜山市中在米量

【商通釜山電話】二月中旬의 釜山市中在米量은 아래와갓다 以下單位石▲低票

	今年	前年同期比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小麥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小豆	[illegible]	[illegible]
糯米	[illegible]	[illegible]
粟	[illegible]	[illegible]
雜穀	[illegible]	[illegible]

朝取의米株
兼營可能?
◇總督府側의意向

朝取의 株米兼營問題에 對하야 總督府側의 意向을 드르면 大體로 許可方針을 定하엿는데 政務總監이 東京에 갓슴으로 最後의 決定을 못하고 잇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兼營의 可能性이 잇는것은 疑心업고 다만 그 實現期가 問題로되여 잇는 모양이다

副業產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查)

京城 (二月二十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무 丸朝鮮産	一貫	[illegible]
同 長	同	[illegible]
고구마	同	[illegible]
馬鈴薯 赤	同	[illegible]
同 白	同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외 朝鮮産	百個	[illegible]
외 中國	同	[illegible]
수박 臺灣	一貫	[illegible]
同 土産	同	[illegible]
茄子 土産	百個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胥葱	同	[illegible]
쓱갓	同	[illegible]
양상치	同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蓮根 土産	一貫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菜豆	同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松茸	同	[illegible]
白菜 中國	一貫	[illegible]
牛蒡	同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林檎 紅玉	四貫	[illegible]
同 國光	同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蜜柑 石油箱入	一個	[illegible]
栗 早生赤	[illegible]	[illegible]
同 日本産	[illegible]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同 今村秋	同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잣	一斗	[illegible]
실백	同	[illegible]
苦椒 朝鮮	同	[illegible]
실苦椒 朝鮮	同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乾柿	百個	[illegible]
고사리 乾物	一束	[illegible]
大棗 中國産	一斗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銀杏	同	[illegible]
乾蕨根	同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雄	百匁	[illegible]
同 雌	同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生兎 白 五百匁以上	同	[illegible]
同 其他	同	[illegible]
同 雌雄 二百五十匁以上	同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四季鳥卵	十個	[illegible]
鵝卵	同	[illegible]
食用鴨	一首	[illegible]
蜂蜜	石油罐一罐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안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以上	同	[illegible]
同 稚毛 上	同	[illegible]
同 稚毛 下	同	[illegible]
同 헤트	同	[illegible]
綿羊皮	一枚	[illegible]
獺皮	同	[illegible]
貂皮	同	[illegible]
黃毛皮	同	[illegible]
大皮	同	[illegible]
山猫皮	同	[illegible]
白兎皮	同	[illegible]
렉기스兎皮	同	[illegible]
노루生皮	百斤	[illegible]
家庭猫	一匹	[illegible]
豚胴毛 背毛	百斤	[illegible]

◇購買品

品名	單位	價格
成鷄用配合飼	八〇斤	[illegible]
育雛用 同	五〇斤	[illegible]
中雛用 同	同	[illegible]
麩	九〇斤	[illegible]
玉蜀黍割	同	[illegible]
高粱粒	五斗	[illegible]
同割	同	[illegible]
驅虫用粉	二폰드	[illegible]
魚粉メ粕	五〇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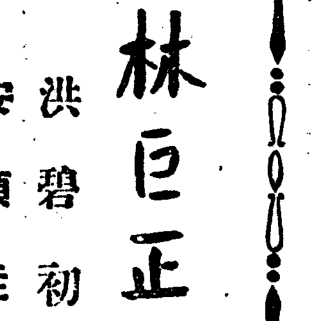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二寸目	百尺	[illegible]
三尺幅 同	同	[illegible]
同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二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五分目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叺	百斤	[illegible]
蠶種	八五斤	[illegible]
表莚	上	[illegible]
同	中	[illegible]
同	下	[illegible]
繩	一反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菅草	一貫	[illegible]
栗虫巢	百斤	[illegible]
椎茸	一貫	[illegible]
切乾大根(서리말리운무)	十貫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蜆(小蛤)	一升	[illegible]



林巨正傳 (321)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서림 一의十四

청석골석굴의 대소사는 다섯두령이 의론하야 결처하나 늙은오가가 넌지 리력 언변으로 괴수격이되어서 의론을 조종하고 결처를 좌우하는일이 만핫다 서림이 자근손가에게서 내막이야기를 듯고먼저 오가를 가서보자고 말하야 도회령에를 들리지안코지나오다가 도회령길목에서 길막봉이가 박유복이와 가치나오는것을 만낫다 자근손가가 유복이와막봉이에게 인사를 마친뒤에 서림이 막봉이아페 나가서 하정배하듯이 허리를굽히고

「지금 보이러오는길인데 어듸를 가십니까」

하고 공손히 말하얏다 막봉이는 서림의말을 대답안코

「이사람이 요전보따리임자요」

하고 유복이를 돌아보고 유복이는 서림을 본체 만체하고 자근손가를 바라보앗다

「생각한사람을 엇재 데리고 왓나」

자근손가는 유복이의말을 대답하기전에 서림을 보고

「미안하지만 저리좀 가십시요」

하고 말하야 서림을 멀치이 비켜세운뒤에 서림이 입당시키면 큰재물이 생길터이 잇다고 이야기하얏다

「큰재물잇단말이 거짓말은아닐까」

「한달안에 탁방이 난다니까 넉넉잡구 한달만 두구보지요」

「한달아니라 두달이라두 두구보기야 어려울것 업지만 엇재 고지가 들리지안네」

「한달동안 속는셈잡으면 되지안소」

막봉이와 자근손가의 수작하는말을 유복이는 듯고잇다가

「자네말두 유리하니까 나종에 의론해보세」

하고 말하얏다

「지금 어듸가시는길입니까」

「집으루 가는길일세」

「길두령두 가치가십니까」

「가치가네」

「그럼나두 저사람데리구가겟습니다」

자근손가는 곳 서림을 데리고 유복이와 막봉이의 뒤를 딸하왓다

오가의집에는 전날대문박게 사랑채를 드려서 큰사랑과자근사랑이 잇는데 큰사랑은 늙은두령 오가의쓰는방이요 자근사랑은 심부름하는 졸개들의쓰는방이라 자근손가가 서림을 자근사랑에 드려안치고 큰사랑에 와서보니 늙은오가는 막봉이와 유복이에게서 서림의 이야기를 듯는중이엇다 자근손가가 방에 들어와서 절하는것을 오가는안저서밧고

「자네가 큰재물을 물어왓다지」

하고 우섯다

「그사람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십시요」

「그러지 이리 불러오게」

자근손가가 다시 자근사랑에가서 서림을 다리고왓다 서림이 오가에게 절인사하고 안진뒤에 오가가

「로형뒤에 큰재물이잇다니 그재물이 지금 어듸잇소」

하고 물어서 서림이

「그재물이 지금은 평양감영에잇습니다 그러나 섯달보름안에 서울루 올라갑니다」

대답하고 평양감영에서 지내일을 대강대강 이야기하얏다 막봉이가 우스면서

「보따리에 들엇든것두 진상물건에서 훔친것이구려」

하고 말하니 서림이 주머니끈을 끌르고 주머니속에서 록두알만한 진주한개를 차저서 여러사람아페 내노흐며

「이진주가 마주막 동리놈 낸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도중에 바치겟습니다」

하고 말하얏다

「진상할물건에 무엇이 잇기에 열목에 난워두 장자열이 난다구 말햇소」

「장자열이 난다구 말한것두 주러말한 폭입니다」

하고 서림이 막봉이말을 대답한뒤 곳입담조케 물건열음을 주서섬기니 방안사람들이 모다 눈을 둥그래케뜨고 서림의입을 처다보는중에 늙은오가는 벌린입귀에 침까지 흘럿다